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제학석사학위논문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농촌과 도시의 가계소비지출  
차이 분석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어혜선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농촌과 도시의 가계소비지출 차이 분석

지도교수 이 태 호

이 논문을 경제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어 혜 선

어혜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농촌과 도시의 가계소비지출 차이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어 혜 선

소비는 주체의 소비환경, 사회경제적, 인구사회학적 여건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아 각각 다른 구조와 패턴으로 나타나게 된다. 때문에 개인 또는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소비수준은 한 국가의 경제적 후생수준 및 복지수준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소득의 양극화는 자연스레 소득계층별 소비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소득은 소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소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득계층별 소비성향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소득의 양극화 현상만큼이나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사회현상은 농촌과 도시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도시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농촌은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 되었다. 2000년대 들어 농촌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과 도시는 계속해서 불균형적으로 발전되었고 여전히 도농 간 생활환경, 인구구조, 삶의 질 등의 여러 격차가 존재한다. 농촌은 도시보다 고령화 되어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다.

이러한 사실은 자연스럽게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차이로 연결된다. 따라서 농촌과 도시의 가계소비지출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농촌과 도시의 불균형을 줄여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농촌과 도시의 가계소비지출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현황을 분석하며 패널GLS 추정기법을 활용한 소비지출 결정요인 실증분석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변인과 더불어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는 지역적 변인이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또한 Oaxaca 요인분해 분석을 이용하여 같은 소득 분위, 같은 연령층의 동일 집단에서 나타나는 농촌과 도시의 소비차이의 발생요인을 분석한다.

농촌과 도시 표본을 분리하지 않고 실증분석 한 결과 지역 변수는 공교육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소비지출에 있어 농촌과 도시의 지역 차이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식비를 비롯하여 외식비, 사교육비, 교양오락비의 경우 농촌에서 도시보다 더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오며 보건의료비만 유일하게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촌과 도시로 표본을 분리하여 실증분석 한 결과 가정식비의 경우 추정기법에 따라 독립변수별 통계적 유의성 여부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농촌과 도시 회귀계수의 방향성은 모든 변수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외식비의 경우에는 농촌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외식비 지출에 부(-)의 영향인 반면 도시에서는 정(+)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상용근로자 수와 임시·일용근로자 수 변수 같은 경우에는 가정식비 항목에서는 모두 부(-)의 영향으로 상용근로자 수와 임시·일용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가정식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외식비 항목에서는 이와 반대로 두 변수 모두 정(+)의 영향으로 상용근로자 수와 임시·일용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외식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교육비 항목에서는 가구주의 연령과 연령제곱, 교육수준 변수가 농촌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도시에서는 가구주의 연령, 연령제곱 교육수준 변수가 모두 공교육비에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의 교육수준 변수는 사교육비 항목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촌에서는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못하고 도시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다. 보건의료비 지출에서는 가구원 수 변수가 농촌과 도시에 다르게 나타나는데 농촌의 경우 가구원 수 변수는 보건의료비의 부(-)의 영향으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보건의료비 지출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도시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 변수가 정(+)의 영향으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보건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양오락비의 경우 가구주의 성별과 연령 변수가 농촌과 도시 표본에서 모두 부(-)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의 성별이 남성일 경우가 여성일 경우보다 교양오락비 지출이 적고 연령이 많을수록 교양오락비 항목 소비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본을 5개의 소득분위와 청장년층, 노년층으로 나누어 소득분위 및 연령층이 같은 집단을 농촌과 도시에 각각 설정하여 동일 계층 소비지출의 농촌과 도시 차이를 살펴보았다. 지출 항목별로 동일 계층에서 농촌과 도시의 지출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집단을 선정하였으며 가정식비 항목에서는 소득 4분위 노년층, 외식비 항목에서는 소득 3분위 청장년층, 공교육비 항목에서는 소득 2분위 청장년층, 사교육비 항목에서는 소득 5분위 청장년층, 교양오락비 항목에서는 소득 5분위 노년층을 분석대상 집단으로 하였다. 보건의료비의 경우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현황분석 중 유일하게 농촌이 도시보다 월평균 지출액 및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이 많은 항목이어서 농촌과 도시의 지출차이가 큰 소득 2분위 노년층과 더불어 청장년층에서도 소득 2분위 집단을 분석에 포함한다. Oaxaca-Ransom 요인분해 분석을 이용하여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차이 발생요인을 가구의 특성 변수들의 차이에 기인한 특성효과와 다른 변수들이 동일할 경우의 농촌과 도시, 지역 차이에 기인한 계수효과로 분해한다. 계수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 항목은 가정식비 항목이며 보건의료비 항목만 농촌과 도시 소비지출의 차이가 지역차이로 설명되는 비중보다 특성차이로 설명되는 비중이 더 크다. 이는 농촌과 도시의 보건의료비 지출에 지역 차이보다는 가구의 특성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농촌의 소득지원 정책 대상, 방법 등의 변화 필요성, 농촌에 즐길 거리 및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간 확대, 농촌의 교육서비스 강화, 기존 노년층 중심 의료 정책의 정책 적용 대상 확장 등과 같은 농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고령층과 빈곤층에 집중되어 조사된 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모든 연령층과 소득분위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실증분석에 있어 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소비지출 항목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과 농촌과 도시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동일 계층을 대상으로 농촌과 도시를 비교분석 한다는 점에서 농촌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농촌과 도시, 소비지출 차이, 소비결정요인, 요인분해

학 번: 2012-21102

## < 목 차 >

제 1 장 서론 .....	1
제 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제 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	3
제 3절 선행연구 검토 .....	5
 제 2 장 분석자료 및 모형 .....	8
제 1절 분석자료 .....	8
제 2절 분석자료의 개요 .....	9
제 3절 분석모형 .....	20
제 4절 변수설정 .....	24
 제 3 장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현황 .....	28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	39
제 1절 소비지출 결정요인 분석 .....	39
제 2절 동일 계층 소비지출 요인분해 분석 .....	49
 제 5 장 결론 .....	65
제 1절 요약 .....	65
제 2절 시사점 및 한계점 .....	69



참 고 문 헌 .....	72
Abstract .....	76

## < 표 목 차 >

<표 2-1> 한국복지패널 표본 유지율 및 총 표본가구 .....	8
<표 2-2>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0
<표 2-3> 연도별 월평균 지출액 .....	12
<표 2-4> 소득분위별 연령대 분포 .....	14
<표 2-5> 농촌과 도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6
<표 2-6> 농촌의 소득분위별 연령대 분포 .....	17
<표 2-7> 도시의 소득분위별 연령대 분포 .....	19
<표 2-8>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량 .....	26
<표 2-9>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량: 농촌과 도시 .....	27
<표 3-1> 농촌과 도시의 평균지출비교 .....	28
<표 3-2> 농촌과 도시의 1인당 평균지출비교 .....	30
<표 3-3> 농촌과 도시의 연도별 월평균 지출액 .....	32
<표 3-4> 소득분위 및 연령별 1인당 월평균 지출액: 가정식비 · 34	
<표 3-5> 소득분위 및 연령별 1인당 월평균 지출액: 외식비 ···· 35	
<표 3-6> 소득분위 및 연령별 1인당 월평균 지출액: 공교육비 · 36	
<표 3-7> 소득분위 및 연령별 1인당 월평균 지출액: 사교육비 · 36	
<표 3-8> 소득분위 및 연령별 1인당 월평균 지출액: 보건의료비 37	
<표 3-9> 소득분위 및 연령별 1인당 월평균 지출액: 교양오락비 38	

<표 4-1> 소비지출 결정요인 추정결과: 가정식비 .....	43
<표 4-2> 소비지출 결정요인 추정결과: 외식비 .....	44
<표 4-3> 소비지출 결정요인 추정결과: 공교육비 .....	45
<표 4-4> 소비지출 결정요인 추정결과: 사교육비 .....	46
<표 4-5> 소비지출 결정요인 추정결과: 보건의료비 .....	47
<표 4-6> 소비지출 결정요인 추정결과: 교양오락비 .....	48
<표 4-7> 농촌과 도시 청장년층 및 노년층의 1인당 지출액 합과 비중 .....	51
<표 4-8> 동일 계층 소비지출 차이의 요인분해: 가정식비 .....	58
<표 4-9> 동일 계층 소비지출 차이의 요인분해: 외식비 .....	59
<표 4-10> 동일 계층 소비지출 차이의 요인분해: 공교육비 .....	60
<표 4-11> 동일 계층 소비지출 차이의 요인분해: 사교육비 .....	61
<표 4-12> 동일 계층 소비지출 차이의 요인분해: 보건의료비(노년층) .....	62
<표 4-13> 동일 계층 소비지출 차이의 요인분해: 보건의료비(청장년층) .....	63
<표 4-14> 동일 계층 소비지출 차이의 요인분해: 교양오락비 ...	64

## < 그 립 목 차 >

<그림 3-1> 농촌과 도시의 1인당 평균지출 .....	31
<그림 4-1> 농촌과 도시 청장년층 및 노년층의 1인당 지출액 합과 비중: 가정식비 .....	52
<그림 4-2> 농촌과 도시 청장년층 및 노년층의 1인당 지출액 합과 비중: 외식비 .....	52
<그림 4-3> 농촌과 도시 청장년층 및 노년층의 1인당 지출액 합과 비중: 공교육비 .....	53
<그림 4-4> 농촌과 도시 청장년층 및 노년층의 1인당 지출액 합과 비중: 사교육비 .....	53
<그림 4-5> 농촌과 도시 청장년층 및 노년층의 1인당 지출액 합과 비중: 보건의료비 .....	54
<그림 4-6> 농촌과 도시 청장년층 및 노년층의 1인당 지출액 합과 비중: 교양오락비 .....	54

# 제 1 장 서론

## 제 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소비란 인간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소모하는 일을 말한다.<sup>1)</sup> 소비는 인간이 처해있는 상황 및 환경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각각 다른 구조와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각 개인별·계층별 소비 수준은 한 국가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경제적 후생수준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소비가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비롯한 성장과 안정을 결정하는 요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가장 큰 영향요소 중 하나인 소득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반면 소비에 관한 연구는 소득 관련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소득은 소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언급 없이 소비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익히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었으며, 소득이 양극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비행태 역시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되기 시작했다(정운영·정세은, 2010).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의 결정요인 역시 변화되기 때문에(이정원 외, 2014) 소득분위별로 나누어 소비행태를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 이외에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소비 당사자가 속해있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더불어 환경, 지역도 영향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및 지역을 농촌과 도시로 나누어 처해있는 환경에 따라 개인의 소비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소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05.29.

1960년대 이후 많은 투자가 도시에 집중 되었고, 그 결과 도시에 비하여 농촌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는 2006년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라는 비전을 가지고 농업 중심의 정책에서 농업·식품·농촌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농촌과 도시가 불균형적으로 발전 되어 왔음을 반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식품·농촌 중심의 정책 으로의 전환 이후 현재까지도 농촌과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활성화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의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농촌과 도시 지역에는 소득을 비롯하여 생활환경, 삶의 질 등의 여러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농촌과 도시 사이에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소득과 연령을 들 수 있다.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16년 농가의 평균소득<sup>2)</sup>은 37,197천 원 이며, 같은 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은 58,613천 원(통계청, 「가계 동향조사」)으로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약 63.5% 수준으로 나타난다. 2010년의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약 66.8%였으며 2015년 에는 약 64.4%로 전반적인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소비지출의 차이도 발생하는데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은 32,884천 원(통계청, 「가계 동향조사」)이었으며 같은 해 농가의 평균 소비지출은 24,999천 원(통계청, 「농가경제조사」)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비지출의 약 76%이다. 2010년 농가 소비지출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의 약 72.8%, 2015년도 약 72.8%로 농가 소비지출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의 약 70% 수준에 머무른다.

지역 구성원의 연령 역시 농촌과 도시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농촌 인구 구성원의 평균 연령이 도시보다 높게 나타난다. 2015년 농촌의 평균연령은 약 44.8세였으며 도시는 약 39.5세(통계청, 「인구총조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 역시 농촌이 도시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

2) 농가의 소득을 농촌의 소득이라 동일시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을 기준단위로 하여 제공되는 소득 통계자료가 없어 농가의 소득을 농촌의 소득으로 대체 한다.

2010년 농촌의 고령인구 비율은 약 20.9%, 도시는 약 9.2%였으며, 2015년에는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약 21.4%로 도시의 약 11.4%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본 연구는 소비지출연구에 초점을 맞춰 농촌과 도시로 나누어 소비행태를 비교해 거주 지역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지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며 소비지출 결정함수를 추정하여 소비결정요인을 파악한다. 더 나아가 소비지출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대표적 요소를 통제하여 소득계층이 같고 연령이 같다면 어떠한 이유로 농촌과 도시의 소비차이가 발생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같은 소득, 같은 연령대로 제한된 범주 내에서의 소비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제 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농촌의 소비지출 현황을 도시의 소비지출 현황과 비교해보고 농촌과 도시의 가계소비지출 규모와 비중이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지 그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소비지출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변인과 더불어 농촌과 도시의 지역 차이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세 번째, 같은 소득분위와 같은 연령대로 비교대상을 제한하였을 때 농촌과 도시의 소비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분석해 보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촌복지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현황파악과 더불어 지역적 변인,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경제적 변인을 바탕으로 소비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소득분위별, 연령대별로 설정된 농촌과 도시 집단의 지역 간 소비차이를 결정짓는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농촌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현황비교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9개년(2008~2016년) 자료를 이용한다. 분석자료의 지역구분을 기준으로 농촌과 도시로 집단을 분류하며 농촌집단에는 군과 도농복합군이, 도시 집단에는 서울과 광역시, 시가 포함된다. 소비항목별 지출액과 비중을 살펴보기 위하여 소비항목은 식료품비-가정식비, 식료품비-외식비, 주거비-월세, 주거비-주거관리비,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 교육비-공교육비, 교육비-사교육비, 교양오락비, 보건의료비로 구분하였다. 소득분위별 집단은 가처분소득기준 5분위로 나누어 소득기준 하위 20%가 소득 1분위, 40%가 소득 2분위, 60%가 소득 3분위, 80%가 소득 4분위, 상위 20%가 소득 5분위로 구분된다. 같은 소득, 같은 연령대로 구분하기 위한 연령대 구분은 5세 단위로 세분화하되 각 연령층의 인구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하여 20세 이상부터 39세 이하까지 20~30대로, 85세 이상부터 99세 이하까지 85~90대로 묶고 나머지 연령층은 40세 이상~44세 이하, 45세 이상~49세 이하, 50세 이상~54세 이하, 55세 이상~59세 이하, 60세 이상~64세 이하, 65세 이상~69세 이하, 70세 이상~74세 이하, 75세 이상~79세 이하, 80세 이상~84세 이하로 나눈다.

다음으로 각 소비항목별 소비지출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소비항목별 월평균 지출액을 종속변수로 두고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선택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과 도시로 구분되는 지역적 변인을 사용하였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교육수준, 가구주의 혼인상태를 사용하였으며, 경제적 변인으로 가처분소득, 부채, 자산을 포함하여 가구 내 상용근로자 수, 임시·일용근로자 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구축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한 소비항목별 소비결정요인 분석에는 패널GLS 추정기법이 활용되며, 같은 소득분위, 같은 연령층인 동일 집단의 도농 간 소비차이 발생요인 분석에는 Oaxaca 요인분해 분석을 실행한다.



## 제 3절 선행연구 검토

### 1. 소득계층 및 연령에 따른 소비지출 연구

가계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소비지출에 관련한 연구로 배미경(1998)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물가부담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소비지출 구조 또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다른 것이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적 흐름이라 파악하였다. 소득계층별 가계 소비지출 동향을 살펴보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1994년 도시가계 연보를 활용하여 소득의 하위 30% 이내로 저소득층을, 상위 30%로 고소득층을 정의하였다. 그 분석 결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평균지출은 15개 항목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정원 외(2014)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사용하여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별 소득계층을 구분해 각 계층별로 소득, 자산, 부채와 같은 규모변수, 채무상환능력 및 금융부채비율을 포함하는 부담 능력변수, 이자율 등의 거시적 변수들이 가계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득분위에 따라 소비에 대한 반응이 비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탄력성이 높았다.

성영애·양세정(1997)은 노인가계에 적합한 소비수준을 측정하고 노인을 위한 경제적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을 근거로 노인가계의 소비지출 행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994년의 도시가계조사를 가지고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계를 노인가계로 정의하였다.

최은영(2017)은 인구의 고령화가 경제활동인구 감소 및 복지지출의 증가와 같은 많은 금융시장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노인가구의 소비력, 자산운용에 있을 변화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령자 가구 소득과 가구소비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고령화연구패널자료(KLoSA)를 이용하여 고령자가구의 자산, 소득, 노동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성영애(2013)는 연령대별로 소비지출패턴이 다르게 유형화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령대별 1인 가구의 소비지출패턴을 비교분석하였다. 2012년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34세 이하를 청년층, 35~64세 이하를 중장년층, 65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구분하고 열 두 개의 소비지출항목에 대해 분석하였다.

## 2. 소비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Bryant와 Zick(2006)는 그들의 저서에서 가계소비의 주된 세 가지 결정요인은 시장가격, 가계소득, 가계선호라고 제시하였다. 소비자의 소득에 따라 소비지출이 변화하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재 소비를 늘리고 열등재에 대한 소비는 줄인다. 시장 가격의 변화는 또한 가구의 실질소득의 변화를 가져와 소득효과를 유발한다. 기호 및 선호의 변화는 시장가격과 실질소득에 상관없이 가계 소비지출의 변화를 야기한다.

Miles(1997)는 인적자원과 소득의 불확실성이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가구원수, 가구 내 근로자 수, 투자소득, 귀속소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의 소비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식료품비, 의료비, 교육비 등 특정 항목에 대한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많다. 손상희와 양세정(1999)은 가계의 식생활비 지출행태에 관한 이해를 하고자 식생활비를 식료품비와 외식비로 각각 나누어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1994년도시가계연보를 사용하여 소득, 집의 점유형태, 직종 등의 변수들의 식생활비에 대한 영향 정도를 파악했다.

신정우 외(2007)는 경제성장에서 비롯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수준의 향상을 근거로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개별 가구의 가구당 세부 비목별 의료비 지출을 구분하여 경제적 요인을 대표하는 소득수준, 가구원수, 취업인원수, 가구주의 특성 등을 포함하는 비경제적 요인 변수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성낙일과 홍성우(2008)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사교육비 지출규모 증가에 문제를 인식하고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가계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학생 성적 등 개별특성변수의 사교육비 지출액에 대한 영향여부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계임과 김성용(2003)은 농가에 한하여 소비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노령화가구의 비중이 높고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한 농가가 상당수임에 착안하여 농가 집단별로 소비행태를 분석하였다. 농가경제조사 횡단면 자료를 가지고 농가의 자산상태, 사회 인구학적 특성, 농가유형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농가소비지출의 결정 요인을 검출하였다.

### 3. 연구의 차별성

기존의 소비지출 연구들은 특정 소득계층 또는 특정 연령에 한정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관광경영학이나 소비자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도시, 농촌 중 한 지역의 소비에 집중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특히 도시지역 위주의 연구가 많았는데 이는 다수의 통계자료가 도시지역만 조사대상 범주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최근엔 가계 소비구조 및 패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계소득 수준과 소비지출 행태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가계 소비의 세부 지출 품목군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차별적 반응을 살펴본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박문수 외, 2016). 이정원 외(2014)는 그동안 미시적 데이터 축적의 문제로 인하여 미시 패널자료를 이용한 소득 분위별 가계의 소비를 분석한 논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농촌과 도시의 지역 차이가 가져오는 소비지출 결정요인이 상이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기존 연구와 달리 농촌과 도시 모두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또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각 소비지출항목별 결정요인을 패널GLS 방법으로 각각 추정하고 Oaxaca 요인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동일 계층에서 농촌과 도시 가계소비지출의 차별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 제 2 장 분석자료 및 모형

### 제 1절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2006년을 시작으로 매년 조사되는 한국복지패널(KOWEPS)의 3차(2008년)~11차(2016년) 자료로 총 9개년 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사용한다. 한국복지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주관하는 국내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패널조사이다. 한국복지패널의 최초 원 표본 가구규모는 7,072 가구로 시작하여 2016년 11차 조사 완료된 원 표본 가구는 총 4,560 가구이며 매년 원 표본 가구의 유지율을 60% 이상 유지하고 있는 패널자료이다.

<표 2-1> 한국복지패널 표본 유지율 및 총 표본가구

(단위: 개, %)

구 분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원표본 가구수	6,128	5,935	5,675	5,336	5,271	5,104	4,896	4,860	4,560
원표본 유지율	86.65	83.92	80.25	75.45	74.53	72.17	69.23	67.31	64.48
조사완료 총 표본가구	6,314	6,207	6,034	5,735	5,732	7,312	7,048	6,917	6,723

한국복지패널은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조사로서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 표본에 포함하고 있어 표본의 대표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농촌과 도시를 비교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지역구분은 5개의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으로 이루어져있다.

## 제 2절 분석자료의 개요

본 연구는 식료품비를 비롯하여 모든 분석 항목의 월평균 지출액이 꾸준하게 조사되기 시작한 3차 년도 자료부터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2008년 3차 자료부터 2016년 11차 자료까지 중간에 탈락되지 않은 가구이면서 시간 갭(Time gap)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구원 4,408명, 총 39,672개의 관측치 만을 분석대상에 넣음으로써 완벽하게 균형 잡힌 Strongly Balanced<sup>3)</sup> 패널을 구축하였다.

연령의 경우 생년으로 조사되는 자료를 연령으로 변환하였으며 한국복지패널에서 교육수준은 두 가지 항목으로 조사 되는데, 첫 번째 항목은 1.미취학을 시작으로 2.무학, 3.초등학교, 4.중학교, 5.고등학교, 6.전문대학, 7.대학교, 8.대학원(석사), 9.대학원(박사)까지 선택하게 되어있으며 두 번째 항목에서 0.비해당, 1.재학(휴학), 2.휴학, 3.중퇴, 4.수료, 5.졸업을 답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을 교육년수로 변환하여 사용하는데 단순히 첫 번째 항목에서 조사되어진 최종 교육기관으로만 코딩할 경우 모두 졸업으로 코딩되어 교육수준이 과대평가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조사항목 중퇴의 경우 중퇴한 교육기관의 총 교육년수의 중간 값으로 책정<sup>4)</sup>하여 교육년수를 코딩하였다. <표 2-2>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보여 질 교육수준에 대한 기초통계는 중졸이하 항목에 무학부터 고등학교중퇴까지 포함하며 고졸 항목에는 고등학교 졸업과 전문대학 중퇴, 전문대졸 항목에는 전문대 졸업과 대학교 중퇴를 각각 포함한다. 농촌과 도시 구분에 있어서는 한국복지패널의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으로 구성된 5개 권역별 지역구분에서 군과 도농복합군만 농촌 범주에

3) 강창희·박상곤(2017) “패널자료는 균형이 잡혀있을(Balanced)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Unbalanced) 수도 있다. 자료가 균형 잡혀있다는 것은 모든 개체들이 모든 시점에서 관측된다는 것으로 모든  $i$ 에 대해  $T_i = T$ 가 성립함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균형 잡혀있지 않다는 것은 일부  $i$ 에 대해  $T_i \neq T$ 가 성립함을 의미한다.”

4) 교육년수는 각각 무학=0, 초등학교 중퇴=3, 초등학교 졸업=6, 중학교 중퇴=7.5, 중학교 졸업=9, 고등학교 중퇴=10.5, 고등학교 졸업=12, 전문대학 중퇴=13, 전문대학 졸업=14, 대학교 중퇴=15, 대학교 졸업=16, 석사 중퇴=17, 석사 졸업(수료)=18, 박사 중퇴=19.5, 박사 졸업(수료)=21로 코딩하였다.

포함하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시는 도시 범주에 포함한다.

<표 2-2>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개, %)

변수	구분	관측치	(비중)
연령	20~29세	21	(0.05)
	30~39세	1,566	(3.95)
	40~44세	2,888	(7.28)
	45~49세	3,755	(9.47)
	50~54세	3,482	(8.78)
	55~59세	3,887	(9.80)
	60~64세	3,582	(9.03)
	65~69세	3,206	(8.08)
	70~74세	4,578	(11.54)
	75~79세	5,579	(14.06)
	80~84세	4,459	(11.24)
	85~99세	2,669	(6.73)
성별	남성	28,654	(72.23)
	여성	11,018	(27.77)
교육수준	중졸이하	20,313	(51.20)
	고졸	11,008	(27.75)
	전문대졸	2,565	(6.47)
	대졸이상	5,786	(14.58)
배우자 유무	유	25,742	(64.89)
	무	13,930	(35.11)
집의 점유형태	자가	23,343	(58.84)
	비자가	16,329	(41.16)
지역	농촌	10,361	(26.12)
	도시	29,311	(73.88)
합계		39,672	(100.0)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2>와 같다. 총 39,672개의 관측치 중 20대는 21개의 관측치로 0.05%인 반면 60세 이상인 관측치는 24,073개로 약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복지패널은 상당히 고령 인구에 집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20,313개, 51.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역시 고령 인구의 비중이 많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25,742개로 64.89%로 나타나며 사별, 이혼, 미혼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13,930개 이다. 집의 점유형태로 나누어 보면 자가를 소유한 경유가 관측치 23,343개로 58.84%이며 전세, 월세 등의 자가가 아닌 경우의 관측치는 16,329개로 41.16%이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를 포함하는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29,311개의 관측치로 73.88%이며 군, 도농복합군을 포함하는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는 10,316개의 관측치로 26.12%를 차지한다.

## 1.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

<표 2-3>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가구의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우선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식생활비 항목을 살펴보면 가정식비와 외식비 모두 지출액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총 생활비 대비 그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거비의 경우 총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게 나타나는데 이는 <표 2-2>에서 살펴보았듯이 표본의 약 60%의 경우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복신발비의 경우 표본이 수집된 기간 동안 월평균 지출액과 비중 모두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통통신비는 지출액은 증가하였으나 비중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교육비는 월평균 지출액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으나 비중은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다. 교양오락비는 월평균 지출액과 비중에서 모두 증가하였으며 보건의료비는 2007년과 비교하면 2015년의 월평균 지출액은 약 5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그 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 동안 한국복지패널 표본에서 나타나는 월평균 총 생활비는 그 액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은 가정식비, 피복신발비와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보건의료비 항목에서 큰 변화를 보이며 비중 측면에서는 외식비, 교육비 항목에서 감소가, 교양오락비 항목에서 증가가 나타난다.

<표 2-3> 연도별 월평균 지출액

(단위: 만 원, %)

항목 연도	식생활비		주거비		피복신발비	총 생활비
	가정식비	외식비	월세	주거관리비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2007	32.4 (15.08)	17.0 (7.90)	2.7 (1.28)	4.8 (2.23)	5.9 (2.76)	214.9
2008	34.0 (15.30)	17.8 (8.00)	2.8 (1.25)	5.3 (2.37)	6.2 (2.77)	222.5
2009	35.1 (15.10)	17.1 (7.35)	2.8 (1.21)	5.4 (2.33)	6.2 (2.68)	232.6
2010	38.6 (15.39)	17.4 (6.94)	2.9 (1.16)	5.0 (2.00)	6.9 (2.73)	250.9
2011	38.7 (14.73)	17.9 (6.83)	3.0 (1.14)	5.8 (2.19)	8.0 (3.04)	262.8
2012	40.4 (14.59)	18.3 (6.62)	3.1 (1.13)	6.2 (2.25)	8.7 (3.16)	276.7
2013	40.2 (15.04)	18.3 (6.85)	3.2 (1.19)	6.4 (2.40)	8.5 (3.17)	267.5
2014	41.1 (14.76)	18.4 (6.63)	3.1 (1.13)	6.5 (2.35)	9.0 (3.25)	278.3
2015	42.9 (14.90)	19.4 (6.73)	3.2 (1.11)	6.9 (2.41)	9.2 (3.21)	288.0
전체	38.2 (14.97)	18.0 (7.05)	3.0 (1.17)	5.8 (2.28)	7.6 (2.99)	254.9

항목 연도	교통통신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보건의료비	총 생활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2007	29.7 (13.83)	7.1 (3.31)	8.8 (4.09)	6.3 (2.95)	11.9 (5.51)	214.9
2008	30.9 (13.88)	7.3 (3.27)	9.0 (4.04)	6.6 (2.98)	13.2 (5.92)	222.5
2009	33.2 (14.27)	7.4 (3.17)	9.3 (3.99)	6.4 (2.76)	13.3 (5.71)	232.6
2010	35.0 (13.95)	7.7 (3.07)	9.8 (3.93)	7.7 (3.08)	14.3 (5.69)	250.9
2011	37.5 (14.27)	7.6 (2.88)	10.0 (3.82)	8.1 (3.06)	15.3 (5.82)	262.8
2012	39.8 (14.38)	7.2 (2.62)	10.7 (3.86)	9.5 (3.44)	16.7 (6.05)	276.7
2013	37.8 (14.13)	7.2 (2.67)	10.5 (3.92)	8.9 (3.32)	15.1 (5.63)	267.5
2014	39.4 (14.17)	7.4 (2.67)	10.4 (3.75)	9.1 (3.28)	16.0 (5.74)	278.3
2015	39.4 (13.68)	6.7 (2.32)	10.6 (3.69)	10.4 (3.60)	16.4 (5.69)	288.0
전체	35.9 (14.07)	7.3 (2.86)	9.9 (3.89)	8.1 (3.19)	14.6 (5.76)	254.9

주: 1) 비중은 (각 항목 지출액/총 생활비)\*100을 의미함.



## 2. 소득분위별 연령대 분포

소득분위별<sup>5)</sup>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가처분소득기준 하위 20%인 소득 1분위의 경우 그 수가 70세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다. 소득 1분위 중 82.52%가 70세 이상이며 80세부터 84세까지인 80대 초반이 관측치 1,958개로 1분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 2분위의 경우에도 70세 이상인 경우가 67.8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며 소득 2분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층은 75세 이상 79세 이하의 연령층이다. 75세 이상 79세 이하의 연령층은 소득 3분위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 5분위로 갈수록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 4분위와 소득 상위 20%인 소득 5분위에서는 모두 45세 이상 49세 이하의 연령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30대와 40세에서 44세까지의 40대 초반의 경우에는 소득 4분위의 비중이 가장 높고 45세 이상부터 64세 이하까지는 소득 5분위에서 가장 많은 관측치를 보였다. 가장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연령대가 표본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은퇴시기와 맞물리기도 하면서 노인의 기준이 되는 65세 이상부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분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

5) 본 연구에서의 소득 1분위는 연평균 가처분소득기준 하위 20%로 연 994만 원 이하이며 소득 2분위는 994만 원 초과 1,831만 원 이하, 소득 3분위는 1,831만 원 초과 3,123만 원 이하, 소득 4분위는 3,123만 원 초과 4,965만 원 이하, 상위 20%인 소득 5분위는 4,965만 원 이상 451,181만 원 이하로 책정된다.

<표 2-4> 소득분위별 연령대 분포

(단위: 개, %)

연령 \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합계
	관측치 (비중)	관측치 (비중)	관측치 (비중)	관측치 (비중)	관측치 (비중)	
20~39세	57 (0.72)	102 (1.29)	453 (5.71)	549 (6.92)	426 (5.37)	1,587 (4.00)
40~44세	45 (0.57)	130 (1.64)	524 (6.60)	1,133 (14.28)	1,056 (13.31)	2,888 (7.28)
45~49세	84 (1.06)	268 (3.38)	690 (8.70)	1,226 (15.45)	1,487 (18.74)	3,755 (9.47)
50~54세	152 (1.92)	292 (3.68)	646 (8.14)	1,000 (12.60)	1,392 (17.54)	3,482 (8.78)
55~59세	237 (2.99)	468 (5.90)	831 (10.47)	1,029 (12.97)	1,322 (16.66)	3,887 (9.80)
60~64세	356 (4.49)	563 (7.10)	691 (8.71)	897 (11.30)	1,075 (13.55)	3,582 (9.03)
65~69세	456 (5.75)	724 (9.13)	843 (10.63)	696 (8.77)	487 (6.14)	3,206 (8.08)
70~74세	1,066 (13.43)	1,361 (17.16)	1,108 (13.97)	645 (8.13)	398 (5.02)	4,578 (11.54)
75~79세	1,908 (24.04)	1,842 (23.22)	1,179 (14.86)	438 (5.52)	212 (2.67)	5,579 (14.06)
80~84세	1,958 (24.67)	1,487 (18.74)	726 (9.15)	241 (3.04)	47 (0.59)	4,459 (11.24)
85~99세	1,617 (20.38)	696 (8.77)	243 (3.06)	81 (1.02)	32 (0.40)	2,669 (6.73)
합계	7,936 (100.0)	7,933 (100.0)	7,934 (100.0)	7,935 (100.0)	7,934 (100.0)	39,672

주: 1)  표시는 연령대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층이며,  표시는 소득분위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층임.

### 3. 농촌과 도시

OECD기준의 농촌구분은 농촌커뮤니티에 속하는 인구비율이 50%이상이면 절대농촌지역, 15~50%이면 상대농촌지역, 15%미만인 경우 절대도시지역으로 구분한다. 이처럼 농촌과 도시는 보통 인구의 규모, 인구의 질적 특성, 경제적 지표, 사회적 특질의 4가지 유형의 기준으로 구분 될 수 있는데(임형백·이성우, 2005) 우리나라는 인구 수 5만 명 이상의 지역을 시 지역으로 구분하며 이는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도농통합군·시 등과 같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모두 포함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수를 비롯한 경제적 속성, 직업분야만으로 농촌과 도시를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강대구, 2009).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은 도시와의 관계에 따라 인구, 산업, 토지이용 등의 특성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위치를 새로운 각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성주인·송미령, 2003). 기존의 농촌과 도시 비교에 중점을 둔 연구들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대도시를 제외한 인구 5만 이상 지역을 도시로, 인구 5만 이하의 읍, 면을 농촌으로 구분하거나(김미숙, 2010) 인구 주택 총 조사의 행정구역을 가지고 동부와 읍, 면부를 구분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동부를 도시, 읍·면부를 농촌으로 간주하였다(은기수, 2012).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 지역구분의 행정구역을 가지고 농촌과 도시로 집단을 분류한다.

제 3 장에서 다루어질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현황을 위한 기초통계로써 표본을 10,361개의 농촌가구와 29,311개의 도시가구로 분리하여 각각 살펴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5>과 같다.

<표 2-5> 농촌과 도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개, %)

변수	구분	농촌		도시	
		관측치	(비중)	관측치	(비중)
연령	20~29세	0	(0.00)	21	(0.07)
	30~39세	213	(2.06)	1,353	(4.62)
	40~44세	293	(2.83)	2,595	(8.85)
	45~49세	407	(3.93)	3,348	(11.42)
	50~54세	580	(5.60)	2,902	(9.90)
	55~59세	593	(5.72)	3,294	(11.24)
	60~64세	937	(9.04)	2,645	(9.02)
	65~69세	801	(7.73)	2,405	(8.21)
	70~74세	1,354	(13.07)	3,224	(11.00)
	75~79세	2,116	(20.42)	3,463	(11.81)
	80~84세	1,853	(17.88)	2,606	(8.89)
	85~99세	1,214	(11.72)	1,455	(4.96)
성별	남성	6,915	(66.74)	21,739	(74.17)
	여성	3,446	(33.26)	7,572	(25.83)
교육수준	중졸이하	7,569	(73.05)	12,744	(43.48)
	고졸	1,927	(18.60)	9,081	(30.98)
	전문대졸	382	(3.69)	2,183	(7.45)
	대졸이상	483	(4.66)	5,303	(18.09)
배우자 유무	유	6,323	(61.03)	19,419	(66.25)
	무	4,038	(38.97)	9,892	(33.75)
집의 점유형태	자가	7,297	(70.43)	16,046	(54.74)
	비자가	6,064	(29.57)	13,265	(45.26)
합계		10,361	(100.0)	29,311	(100.0)



농촌 가구원 중 20대는 관측치가 없는 반면 65세 이상의 노인 비중은 70.82%로 7,338개의 관측치 이다. 도시의 경우 20대는 21개의 관측치가 존재하며 65세 이상의 노인은 13,153개로 44.87%를 차지하는데 고령화의 정도가 도시보다 농촌이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성별은 농촌과 도시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으며 교육수준은 중졸이하의 비중은 농촌이 73.05%, 도시가 43.48%인 반면 대졸이상의 관측치의 비중은 농촌이 4.66%, 도시가 18.09%로 도시가 농촌보다 고학력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과 도시의 소득분위별 연령대 분포는 각각 <표 2-6>, <표 2-7>과 같다.

<표 2-6> 농촌의 소득분위별 연령대 분포

(단위: 개, %)

연령 \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합 계
	관측치 (비중)	관측치 (비중)	관측치 (비중)	관측치 (비중)	관측치 (비중)	
20~39세	4 (0.13)	9 (0.31)	53 (2.72)	93 (6.73)	54 (4.99)	213 (2.06)
40~44세	2 (0.07)	22 (0.75)	61 (3.13)	113 (8.18)	95 (8.77)	293 (2.83)
45~49세	12 (0.40)	52 (1.77)	90 (4.61)	127 (9.19)	126 (11.63)	407 (3.93)
50~54세	20 (0.66)	65 (2.22)	140 (7.17)	145 (10.49)	210 (19.39)	580 (5.60)
55~59세	50 (1.66)	108 (3.68)	109 (5.58)	136 (9.84)	190 (17.54)	593 (5.72)
60~64세	103 (3.42)	162 (5.53)	206 (10.55)	246 (17.80)	220 (20.31)	937 (9.04)
65~69세	131 (4.35)	233 (7.95)	189 (9.68)	146 (10.56)	102 (9.42)	801 (7.73)
70~74세	318 (10.55)	497 (16.96)	319 (16.34)	177 (12.81)	43 (3.97)	1,354 (13.07)
75~79세	747 (24.79)	796 (27.16)	439 (22.49)	111 (8.03)	23 (2.12)	2,116 (20.42)
80~84세	847 (28.11)	669 (22.82)	258 (13.22)	67 (4.85)	12 (1.11)	1,853 (17.88)
85~99세	779 (25.85)	318 (10.85)	88 (4.51)	21 (1.52)	8 (0.74)	1,214 (11.72)
합 계	3,013 (100.0)	2,931 (100.0)	1,952 (100.0)	1,382 (100.0)	1,083 (100.0)	10,361

주: 1)  표시는 연령대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층이며,  표시는 소득분위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층임.

소득 1분위에서 70세 이상의 연령층 비중이 89.30%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80세 이상 84세 이하의 연령층이 소득 1분위에서는 28.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층이며 소득 2분위와 소득 3분위에서는 그보다 조금 낮아진 75세 이상 79세 이하의 연령층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소득 4분위와 소득 5분위에서는 모두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연령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 4분위와 소득 5분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이 전체와 도시 표본의 소득분위별 연령대 분포에서는 45세 이상 49세 이하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농촌에서는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나타난다. 20~39세와 40~49세 연령층은 모두 소득 4분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도시의 소득분위별 연령대 분포는 전체 표본의 분포와 거의 흡사한 분포를 보인다. 소득 1분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세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소득 1분위 중 78.36%가 70세 이상의 연령층이다. 75세 이상 79세 이하의 연령층은 소득 1분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 2분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65세 이상 69세 이하의 연령층은 소득 3분위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64세 이하부터 45세까지는 소득 5분위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전체 표본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45세 이상 49세 이하의 연령층은 소득 5분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 4분위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이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낮은 소득분위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촌과 도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비중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소득 1분위에서 차지하는 70세 이상의 연령 비중이 도시는 78.36%인 반면 농촌은 89.30%로 농촌이 도시보다 높다. 이는 농촌이 도시보다 고령화 되어있고 고령층의 소득수준이 도시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다 자세한 농촌과 도시의 비교는 제 3 장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현황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2-7> 도시의 소득분위별 연령대 분포

(단위: 개, %)

연령 \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합계
	관측치 (비중)	관측치 (비중)	관측치 (비중)	관측치 (비중)	관측치 (비중)	
20~39세	53 (1.08)	93 (1.86)	400 (6.69)	456 (6.96)	372 (5.43)	1,374 (4.69)
40~44세	43 (0.87)	108 (2.16)	463 (7.74)	1,020 (15.57)	961 (14.03)	2,595 (8.85)
45~49세	72 (1.46)	216 (4.32)	600 (10.03)	1,099 (16.77)	1,361 (19.87)	3,348 (11.42)
50~54세	132 (2.68)	227 (4.54)	506 (8.46)	855 (13.05)	1,182 (17.25)	2,902 (9.90)
55~59세	187 (3.80)	360 (7.20)	722 (12.07)	893 (13.63)	1,132 (16.52)	3,294 (11.24)
60~64세	253 (5.14)	401 (8.02)	485 (8.11)	651 (9.93)	855 (12.48)	2,645 (9.02)
65~69세	325 (6.60)	491 (9.82)	654 (10.93)	550 (8.39)	385 (5.62)	2,405 (8.21)
70~74세	748 (15.19)	864 (17.27)	789 (13.19)	468 (7.14)	355 (5.18)	3,224 (11.00)
75~79세	1,161 (23.58)	1,046 (20.91)	740 (12.37)	327 (4.99)	189 (2.76)	3,463 (11.81)
80~84세	1,111 (22.57)	818 (16.35)	468 (7.82)	174 (2.66)	35 (0.51)	2,606 (8.89)
85~99세	838 (17.02)	378 (7.56)	155 (2.59)	60 (0.92)	24 (0.35)	1,455 (4.96)
합계	4,923 (100.0)	5,002 (100.0)	5,982 (100.0)	6,553 (100.0)	6,851 (100.0)	29,311

주: 1)  표시는 연령대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층이며,  표시는 소득분위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층임.

## 제 3절 분석모형

### 1. 소비지출 결정요인<sup>6)</sup>

본 연구는 농촌과 도시로 지역을 나누어 소비지출의 현황을 파악함과 더불어 소비지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며 동일 소득분위, 연령대로 표본을 세분화 하였을 때의 소비지출 영향 요인을 비교하고자 한다.

소비지출 결정요인 분석을 위하여 식료품비-가정식비, 식료품비-외식비, 교육비-공교육비, 교육비-사교육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에 대해 총 6개의 소비지출 항목별 지출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표 2-3>에서 제시하였듯이 더 많은 항목의 지출이 조사되지만 최근 선행연구들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항목들 위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소비지출 결정요인은 다음의 식(1)과 같은 선형회귀모형을 통해 측정한다.

$$(1) \quad y_{it} = \alpha + \beta x_{it} + \epsilon_{it} \\ (i = 1, 2, \dots, n \text{ 및 } t = 1, 2, \dots, T_i)$$

$Y$ 는 가구의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이며  $x_{it}$ 는  $Y$ 를 설명하는 변수들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특성을 의미하며  $\beta$ 는 추정해야할 모수(parameter)들이다.  $n$ 은 패널 개체수이고, 하첨자  $i$ 와  $t$ 는 각각 개체의 특성과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T_i$ 는 개체  $i$ 의 자료 포괄기간이 된다. 본 연구를 위해 구축한 패널자료는 균형패널이므로  $T_i = T$ 가 성립하며 전체 관측개체 수는  $N = n \times T$ 로 계산 할 수 있다.

---

6) 소비지출 결정요인 분석모형의 경우 민인식·최필선(2012a, 2012b)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식(1)을 사용하여 자료가 패널구조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패널자료에서 나타나는 개별 관측치의 특성과 시간흐름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식(1)을 통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로 추정하는 것이 합동OLS(Pooled OLS) 모형이다. 패널자료는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차항에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이나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OLS추정량은 비효율적인(inefficient) 추정량이 될 수 있으며 편의(bias)를 갖게 되어 일치추정량(consistent)이 되지 못한다. 오차항에 이분산성이 존재할 경우 더욱 효율적인 추정량을 구하는 방법이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GLS 분석을 시행한다.

패널GLS는 식(1)의 계수  $\alpha$ 와  $\beta$ 가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추정한다. 하지만 패널분석에서는 오차항을 개별 관측치의 특성과 시간흐름의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를 회귀식에 반영하면 식(2)와 같다.

$$(2) \quad y_{it} = \alpha + \beta x_{it} + u_i + e_{it}$$

$$(3) \quad u_i \sim (0, \sigma_u^2)$$

$$(4) \quad e_{it} \sim (0, \sigma_e^2)$$

$$(5) \quad cov(u_i, e_{it}) = 0$$

식(2)는 식(1)의 오차항  $\epsilon_{it}$ 를  $u_i$ 와  $e_{it}$ 로 분리한 것이다. 오차항  $u_i$ 는 개별 관측치의 특성을 나타내며  $e_{it}$ 는 순수한 오차항이다. 각 오차항에 대해서 평균이 0이고, 동분산성을 만족하도록 식(3), 식(4)를 가정한다. 또한 오차항  $e_{it}$ 에 대해서는 식(5)를 가정하여 자기상관이 없다고 가정한다.

## 2. 소비지출 요인분해

동일 계층의 소비지출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Oaxaca-Ransom(1994) 요인분해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Oaxaca 요인분해 모형은 차이발생 요인을 집단 내의 특성 차이에서 기인한 것과 집단 간 속성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구분해서 추정하여 요인을 분해하는 것에 유용한 모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두 집단의 순수한 차이를 분해하는 데에 활용 된다. 본 연구에서는 Oaxaca 요인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같은 계층의 농촌과 도시 지역 소비차이 발생 원인을 가구특성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집단 내의 특성 차이에서 기인한 것)과 가구특성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집단 간 속성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해해 보고자 한다.

Oaxaca 요인분해 방법은 선형회귀 모형을 기초로 하며 농촌과 도시의 소비차이를 요인별로 구분하여 추정할 경우, 먼저 식(11)과 식(12)와 같이 각 표본의 소비지출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

$$(11) \text{ 농촌}(R): Y_r = \beta_r X_r + \epsilon_r$$

$$(12) \text{ 도시}(C): Y_c = \beta_c X_c + \epsilon_c$$

식(11)과 식(12)에서  $r$ 은 농촌지역을,  $c$ 는 도시지역을 나타낸다. 식(11)과 식(12)로부터 추정된 농촌과 도시의 평균소비지출을 각각  $\overline{Y}_r$ ,  $\overline{Y}_c$ 로 표시하면 농촌과 도시 지역 간의 가계소비지출 차이는 식(13)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13) \quad YD = \overline{Y}_r - \overline{Y}_c$$

식(13)의  $\overline{Y}_r$ 과  $\overline{Y}_c$ 는 각각 식(14)와 식(15)로 표현 될 수 있는데 이는 식(11)의 기댓값을 구하면 좌변은 농촌지역의 평균소비지출인  $\overline{Y}_r$ 가 되며 우변은  $E(\hat{\epsilon}_r) = 0$  이므로  $\hat{\beta}_r \overline{X}_r$ 이 되기 때문에 식(14)가 성립된다. 동일한 논리로 식(15)도 성립됨을 알 수 있다.

$$(14) \quad \overline{Y}_r = \hat{\beta}_r \overline{X}_r'$$

$$(15) \quad \overline{Y}_c = \hat{\beta}_c \overline{X}_c'$$

농촌과 도시의 소비차이를 나타내는 식(13)은 식(16)과 같이 분해해 볼 수 있다.

$$(16) \quad \begin{aligned} \overline{Y}_r - \overline{Y}_c &= \hat{\beta}_r \overline{X}_r' - \hat{\beta}_c \overline{X}_c' \\ &= [(\hat{\beta}_r - \beta^*) \overline{X}_r' + (\beta^* - \hat{\beta}_c) \overline{X}_c'] + (\overline{X}_r' - \overline{X}_c') \beta^* \\ \beta^* &= \Omega \hat{\beta}_r + (I - \Omega) \hat{\beta}_c \end{aligned}$$

식(16)에서 앞의 항  $[(\hat{\beta}_r - \beta^*) \overline{X}_r' + (\beta^* - \hat{\beta}_c) \overline{X}_c']$  은 계수효과로 소비지출 차이 중에서 가구특성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는 같은 속성을 가진 개인 임에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집단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차이를 의미한다. 뒤의 항  $(\overline{X}_r' - \overline{X}_c') \beta^*$  는 특성효과로 소비지출 차이 중에서 가구특성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며, 두 집단에 속하는 개인 간 특성의 차이 즉, 성별, 연령, 교육년수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지출의 차이를 의미한다.

Oaxaca(1973)는  $\beta^* = \hat{\beta}_r$  또는  $\beta^* = \hat{\beta}_c$  로 두었으며 이는  $\Omega$  를 1 또는 0 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느 집단을 기준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요인분해 결과가 달라진다. 이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Oaxaca 요인분해 모형의  $\beta^*$  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제시하였고 Reimers(1983)는 두 집단을 평균하는  $\beta^* = 0.5\hat{\beta}_r + 0.5\hat{\beta}_c$  로, Cotton(1988)은 집단의 크기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두는  $\beta^* = \frac{n_r}{n_r + n_c} \hat{\beta}_r + \frac{n_c}{n_r + n_c} \hat{\beta}_c$  로 정의하였으며 Oaxaca-Ransom(1994)는  $\Omega = (X_r' X_r + X_c' X_c)^{-1} X_r' X_r$  로 정의하는  $\beta^*$  을 설정하였다.

## 제 4절 변수설정

###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에 조사되는 생활비 항목 중 식료품비-가정 식비, 식료품비-외식비, 교육비-공교육비, 교육비-사교육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월평균 지출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이 항목들은 모두 금액으로 표시되는 변수들 이므로 자연대수화<sup>7)</sup>하여 회귀분석 하고자한다.

###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이다.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의 혼인상태, 가처분소득, 부채, 자산, 가구 내 상용근로자 수, 임시·일용근로자 수를 사용하며, 종속변수와 마찬가지로 금액 기준으로 표시되는 변수들인 가처분소득, 부채, 자산은 자연대수화 하여 회귀식에 반영한다. 전체 표본을 분석대상으로 한 경우는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는 지역더미 변수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구체적인 측정방법과 기초통계량을 <표 2-8>에 제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전체 표본의 평균 가구원 수는 2.58명이며 72%가 남성 가구주 이다.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64.44세이며 평균 교육년수는 9.27년이다. 가구 내 평균 상용근로자 수는 0.4명 임시·일용근로자 수는 0.5명으로 나타난다.

농촌과 도시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농촌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2명, 도시의 평균 가구원 수는 2.71명으로 평균 가구원 수는 도시가 더 많은

---

7) 지출액이 0으로 나타나는 변수는 로그 변환이 안 되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따라 개별 지출액 변수들은 1의 값을 더한 뒤 자연대수화 한다. 선행연구별로 1 또는 10을 더하기도 하는데, 이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박정수·김준기, 2014).

것으로 나타난다. 농촌 가구의 67%가 남성 가구주이며 도시가구는 74%가 남성 가구주이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농촌이 71.02세, 도시가 62.11세로 농촌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더 높게 나타나며 가구주의 평균 교육년수는 농촌은 6.69년이고 도시는 10.18년이다. 농촌가구의 가구 내 상용근로자 수는 0.2명, 임시·일용근로자 수는 0.4명이고 도시가구의 가구 내 상용근로자 수는 0.5명, 임시·일용근로자 수는 0.6명으로 농촌과 도시 모두 가구 내 상용근로자 수 평균 보다 임시·일용근로자 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난다.

<표 2-8>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량(N=39,672)

(단위: 만 원, 명, 세, 년)

변수명			정의 및 측정방법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식료품비	가정식비	각 항목의 월평균 지출액	38.16	19.62	0	226
		외식비		17.96	18.21	0	310
	보건의료비			14.67	23.95	0	1,195
	교육비	공교육비		7.28	21.21	0	350
		사교육비		9.91	25.12	0	437
	교양오락비			8.12	16.68	0	831
독립변수	지역		농촌과 도시 지역구분 더미(농촌=1)	0.26	0.44	0	1
	가구원 수		가구의 구성원 수	2.58	1.31	1	9
	가구주 성별		가구주의 성별 더미(남성=1)	0.72	0.45	0	1
	가구주 연령		가구주의 연령	64.44	14.81	20	97
	가구주 연령제곱		가구주의 연령제곱/100	43.72	18.81	4	94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의 교육년수	9.27	5.08	0	21
	가구주 혼인상태		가구주의 혼인상태 더미 (배우자 있음=1)	0.65	0.48	0	1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	3,232	4,031	5	451,181
	부채		금융기관대출 카드빚 합	1,619	5,206	0	265,000
	자산		소유 및 점유부동산, 금융자산 합	11,760	34,409	0	1,110,599
	상용 근로자 수		가구 내 상용근로자 수	0.41	0.66	0	5
	임시·일용 근로자 수		가구 내 임시·일용근로자 수	0.54	0.74	0	6

<표 2-9>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량: 농촌과 도시

(단위: 만 원, 명, 세, 년)

변수명			농촌(N=10,361)				도시(N=29,311)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식료품비	가정식비	32.77	16.72	2	226	40.07	20.20	0	207
		외식비	10.50	14.30	0	176	20.60	18.71	0	310
	보건의료비		14.91	24.01	0	673	14.59	23.93	0	1,195
	교육비	공교육비	4.50	16.89	0	277	8.27	22.46	0	350
		사교육비	3.31	12.74	0	149	12.25	27.86	0	437
	교양오락비		4.66	9.99	0	173	9.34	18.32	0	831
독립변수	가구원 수		2.22	1.22	1	8	2.71	1.31	1	9
	가구주 성별		0.67	0.47	0	1	0.74	0.44	0	1
	가구주 연령		71.02	13.23	33	97	62.11	14.64	20	97
	가구주 연령제곱		52.18	17.58	11	94	40.72	18.31	4	94
	가구주 교육수준		6.69	4.90	0	18	10.18	4.82	0	21
	가구주 혼인상태		0.61	0.49	0	1	0.66	0.47	0	1
	가처분소득		2,351	2,515	5	74,836	3,544	4,402	6	451,181
	부채		871	3,096	0	70,000	1,883	5,747	0	265,000
	자산		13,204	29,199	0	1,037,499	11,250	36,058	0	1,110,599
	상용 근로자 수		0.19	0.48	0	4	0.48	0.69	0	5
	임시·일용 근로자 수		0.44	0.67	0	4	0.58	0.77	0	6

### 제 3 장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현황

이번 장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현황을 각각 살펴보고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과 특징을 나타내는지 보고자 한다. 먼저 자료 전체를 농촌과 도시로 나누어 각 소비지출항목의 평균 지출액을 살펴본다.

<표 3-1> 농촌과 도시의 평균지출비교

(단위: 만 원, %)

			평균	(표준편차)	(농촌/도시)*100
식 생활비	가정 식비	농촌	32.77	(0.16)	81.78
		도시	40.07	(0.12)	
	외 식비	농촌	10.50	(0.14)	50.97
		도시	20.60	(0.11)	
주거비	월 세	농촌	0.90	(0.04)	24.13
		도시	3.73	(0.06)	
	주거관리비	농촌	4.31	(0.18)	67.87
		도시	6.35	(0.10)	
피복신발비		농촌	5.06	(0.08)	59.25
		도시	8.54	(0.06)	
보건의료비		농촌	14.91	(0.24)	102.19
		도시	14.59	(0.14)	
교육비	공 교육비	농촌	4.50	(0.17)	54.41
		도시	8.27	(0.13)	
	사교육비	농촌	3.31	(0.13)	27.02
		도시	12.25	(0.16)	
교양오락비		농촌	4.66	(0.10)	49.89
		도시	9.34	(0.11)	
총 생활비		농촌	187.38	(1.65)	67.22
		도시	278.77	(1.26)	

지출항목 중 유일하게 보건의료비만 농촌이 도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보건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소비지출 항목에서 도시가 농촌보다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총 생활비 지출은 농촌이 도시의 약 6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식생활비 항목 중 가정식비는 약 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식비와 외식비 모두 도시에서 약 10만 원 정도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농촌의 가정식비는 도시의 약 80% 수준이고 외식비는 도시의 절반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어 가정식비보다 외식비의 지출 차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월세와 주거관리비 역시 도시에서 월 지출액이 약 2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비의 경우 사교육비는 도시가 농촌보다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공교육비도 마찬가지로 도시의 지출액이 농촌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규교육과정에 있는 어린 자녀들의 수가 도시에 더 많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보건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도시의 소비지출이 농촌의 소비지출 보다 많은 것을 미루어보아 농촌의 보건의료비 지출에 어떠한 특이점이 존재하는지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구 구성원의 수로 볼 수 있다. 평균 가구원 수가 많은 도시가 평균 가구원 수가 적은 농촌에 비해 소비지출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때문에 각 소비지출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1인당 소비지출을 살펴 보고 이는 농촌과 도시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항목별 1인당 소비지출은 <표 3-2>와 같다. 1인당 총 생활비를 살펴 보면 농촌은 도시의 약 80% 수준의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인 소비지출이라 생각할 수 있는 총 생활비가 도시보다 농촌이 더 적으므로 세부 항목별 지출 또한 <표 3-1>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시가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1인당 평균지출로 항목별 지출을 비교해 보면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했던 소비지출과는 조금 다른 점이 나타난다. 기본적인 소비 양상은 도시가 농촌보다 지출이 많은 것으로 이전의 가구원 수를 고려하기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가정식비의 경우 농촌이 도시의 약 80% 수준으로 나타났던 이전의 결과와 달리 농촌이 도시보다 근소한 액수로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일하게 도시보다 농촌의 평균 지출액이 많았던 의료비 역시 약 2%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던 <표 3-1>의 결과와는 다르게 1인당 평균지출로 비교해보았을 때에는 약 24%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촌의

총 생활비의 수준이 도시의 약 80%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세부 항목별 지출액 또한 농촌은 도시의 80%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보건의료비 항목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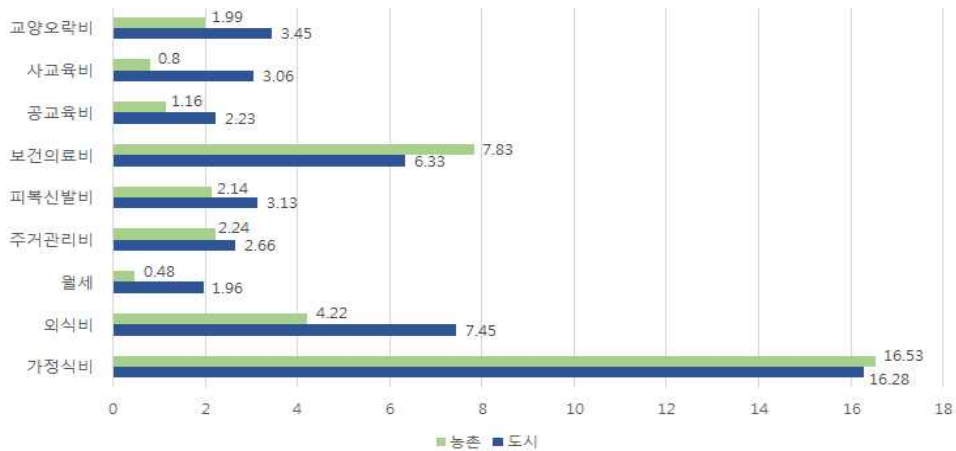
<표 3-2> 농촌과 도시의 1인당 평균지출비교

(단위: 만 원, %)

			평균	(표준편차)	(농촌/도시)*100
식생활비	가정 식비	농촌	16.53	(0.07)	101.54
		도시	16.28	(0.04)	
	외 식비	농촌	4.22	(0.05)	56.64
		도시	7.45	(0.04)	
주거비	월 세	농촌	0.48	(0.02)	24.49
		도시	1.96	(0.03)	
	주거관리비	농촌	2.24	(0.10)	84.21
		도시	2.66	(0.05)	
피복신발비		농촌	2.14	(0.03)	68.37
		도시	3.13	(0.02)	
보건의료비		농촌	7.83	(0.12)	123.70
		도시	6.33	(0.07)	
교육비	공 교육비	농촌	1.16	(0.04)	52.02
		도시	2.23	(0.04)	
	사 교육비	농촌	0.80	(0.03)	26.14
		도시	3.06	(0.04)	
교양오락비		농촌	1.99	(0.04)	57.68
		도시	3.45	(0.04)	
총 생활비		농촌	82.70	(0.53)	80.27
		도시	103.03	(0.40)	

<그림 3-1> 농촌과 도시의 1인당 평균지출

(단위: 만 원)



농촌과 도시의 전체적인 소비의 차이는 앞서 살펴 본 <표 3-1>과 <표 3-2>와 같다. 다음의 <표 3-3>에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로 농촌과 도시의 소비가 어떻게 변화 되는지 보고자 한다.

가정식비의 경우 농촌과 도시 모두 평균 지출액이 점차 증가하나 총 생활비 대비 그 비중은 지난 9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외식비는 지출액과 비중 모두 큰 변동이 없었으며 월세도 마찬가지이다. 주거관리비의 경우 농촌은 지출액과 비중이 매년 비슷하게 유지되고 도시의 경우는 지출액이 약 2만 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이나 비중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농촌의 피복신발비는 9개년 동안 지출액이 소폭 상승하였고 비중은 비슷하게 유지된다. 도시의 피복신발비는 지출액과 비중 두 가지 측면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교통통신비의 경우 농촌과 도시 두 지역 모두 지출액은 늘어났고 총 생활비에서 교통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 농촌의 공교육비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나며 도시 역시 지출액은 비슷하지만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교육비의 경우 농촌의 월평균 지출액은 큰 변동이 없으며 비중 측면에서는 2007년 대비 2015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3> 농촌과 도시의 연도별 월평균 지출액

(단위: 만 원, %)

항목 연도	가정식비		외식비		총 생활비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2007	28.1 (17.88)	34.0 (14.40)	9.8 (6.25)	19.6 (8.31)	157.0	236.3
2008	30.3 (17.93)	35.4 (14.62)	10.1 (5.97)	20.6 (8.52)	169.0	242.2
2009	31.0 (17.59)	36.6 (14.46)	10.2 (5.78)	19.6 (7.75)	176.5	253.2
2010	33.9 (17.68)	40.3 (14.80)	10.1 (5.27)	20.0 (7.36)	191.9	272.3
2011	34.2 (17.25)	40.3 (14.10)	10.5 (5.32)	20.6 (7.20)	198.2	286.0
2012	35.2 (17.02)	42.1 (14.01)	10.8 (5.21)	20.9 (6.95)	206.9	300.7
2013	33.4 (17.52)	42.5 (14.49)	10.5 (5.51)	21.0 (7.14)	190.5	293.6
2014	34.3 (17.35)	43.4 (14.20)	10.8 (5.47)	21.0 (6.88)	197.7	305.4
2015	34.9 (17.31)	45.6 (14.39)	11.8 (5.85)	21.9 (6.91)	201.8	316.8
전체	32.8 (17.49)	40.1 (14.37)	10.5 (5.61)	20.6 (7.39)	187.4	278.8

항목 연도	월세		주거관리비			
	농촌		도시		농촌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2007	0.9	(0.60)	3.4	(1.45)	3.4	(2.15)
2008	0.9	(0.54)	3.5	(1.43)	4.9	(2.91)
2009	1.0	(0.57)	3.5	(1.38)	3.1	(1.77)
2010	0.8	(0.43)	3.7	(1.35)	3.5	(1.82)
2011	0.8	(0.41)	3.8	(1.32)	4.5	(2.29)
2012	0.8	(0.41)	3.9	(1.30)	5.9	(2.86)
2013	0.8	(0.43)	4.0	(1.35)	4.0	(2.11)
2014	0.8	(0.43)	3.9	(1.28)	4.7	(2.40)
2015	1.0	(0.52)	3.9	(1.24)	4.8	(2.37)
전체	0.9	(0.48)	3.7	(1.34)	4.3	(2.30)

항목 연도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			
	농촌		도시		농촌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2007	3.8	(2.43)	6.7	(2.84)	21.9	(13.92)
2008	3.9	(2.34)	7.0	(2.88)	23.7	(14.00)
2009	4.4	(2.49)	6.9	(2.73)	24.5	(13.90)
2010	5.2	(2.71)	7.5	(2.74)	26.8	(13.95)
2011	5.5	(2.77)	8.9	(3.10)	26.1	(13.18)
2012	6.0	(2.88)	9.7	(3.22)	26.9	(13.02)
2013	5.3	(2.78)	9.6	(3.26)	25.7	(13.51)
2014	5.7	(2.87)	10.2	(3.33)	28.3	(14.30)
2015	5.9	(2.93)	10.3	(3.27)	27.5	(13.61)
전체	5.1	(2.70)	8.5	(3.06)	25.7	(13.70)

주: 1) 비중은 (각 항목 지출액/총 생활비)\*100을 의미함.

<표 3-3> 농촌과 도시의 연도별 월평균 지출액(계속)

(단위: 만 원, %)

항목 연도	공교육비				사교육비			
	농촌		도시		농촌		도시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2007	4.9	(3.09)	7.9	(3.36)	3.6	(2.29)	10.7	(4.53)
2008	5.3	(3.15)	8.0	(3.30)	3.6	(2.15)	11.0	(4.53)
2009	4.9	(2.77)	8.3	(3.28)	3.2	(1.83)	11.5	(4.55)
2010	4.8	(2.51)	8.7	(3.21)	3.2	(1.66)	12.3	(4.50)
2011	4.8	(2.44)	8.5	(2.99)	3.3	(1.66)	12.5	(4.35)
2012	4.4	(2.11)	8.2	(2.74)	3.3	(1.62)	13.2	(4.40)
2013	3.8	(1.99)	8.3	(2.82)	3.0	(1.57)	13.0	(4.44)
2014	3.9	(1.99)	8.6	(2.82)	3.2	(1.60)	12.9	(4.22)
2015	3.6	(1.77)	7.7	(2.44)	3.3	(1.64)	13.1	(4.13)
전체	4.5	(2.40)	8.3	(2.97)	3.3	(1.77)	12.2	(4.39)

항목 연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농촌		도시		농촌		도시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2007	11.3	(7.19)	12.1	(5.10)	3.4	(2.18)	7.4	(3.13)
2008	12.6	(7.47)	13.4	(5.52)	4.1	(2.42)	7.6	(3.13)
2009	14.7	(8.31)	12.8	(5.04)	4.5	(2.54)	7.1	(2.82)
2010	14.4	(7.52)	14.2	(5.22)	4.4	(2.29)	8.9	(3.28)
2011	15.6	(7.88)	15.2	(5.31)	4.7	(2.36)	9.3	(3.24)
2012	17.1	(8.25)	16.6	(5.53)	5.7	(2.74)	10.9	(3.61)
2013	16.2	(8.48)	14.7	(5.00)	4.8	(2.50)	10.3	(3.50)
2014	16.3	(8.23)	15.9	(5.20)	4.9	(2.48)	10.6	(3.46)
2015	16.4	(8.15)	16.4	(5.17)	5.7	(2.82)	11.9	(3.77)
전체	14.9	(7.96)	14.6	(5.23)	4.7	(2.49)	9.3	(3.35)

주: 1) 비중은 (각 항목 지출액/총 생활비)\*100을 의미함.

보건의료비의 경우 농촌은 지출액과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도시는 비중에는 큰 변동 없이 지출액만 약 2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양오락비의 경우는 농촌에서는 지출액이 소폭 증가하지만 비중은 크게 변화되지 않으며 도시의 경우 지출액과 비중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촌과 도시의 연도별 월평균 지출액과 그 비중을 살펴 본 결과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지출은 농촌과 도시 모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농촌과 도시의 지출을 소득분위별,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표 3-4>부터 <표 3-9>까지는 각 지출항목별 농촌과 도시의 소득분위 및 연령별 1인당 지출액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소득분위가 올라가면 소비지출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소득분위 내에서의 연령대별 소비지출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소득분위 및 연령별 가정식비 1인당 지출액을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1분위와 2분위에서는 젊은 연령층의 지출과 고령층의 지출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반면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연령대별 지출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소득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정식비 지출이 증가한다. 농촌의 소득 1분위와 2분위는 20세에서 49세까지 젊은 연령층에서 비교적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도시의 소득 1분위와 2분위에서는 65세 이상에서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65세 이상의 연령층이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연령층으로 나타나고 농촌은 소득 1분위와 2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분위에서 고령층의 소비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4> 소득분위 및 연령별 1인당 월평균 지출액: 가정식비

(단위: 만 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20~39세	19.25	15.63	20.72	12.98	12.50	14.81	13.83	14.61	15.52	15.76
40~44세	8.38	13.46	13.09	14.13	13.29	12.66	12.12	13.84	12.70	14.99
45~49세	19.63	14.37	12.11	12.31	12.08	12.20	12.44	12.80	14.53	14.92
50~54세	13.34	16.46	12.44	13.30	10.63	12.41	11.39	12.59	13.48	14.72
55~59세	16.14	15.89	15.24	15.09	13.29	13.33	12.81	14.00	14.90	16.23
60~64세	14.90	16.52	17.50	17.41	15.12	15.69	15.73	15.81	17.18	17.94
65~69세	16.90	17.26	18.57	18.47	18.15	18.26	17.12	17.47	18.94	17.64
70~74세	17.80	17.04	18.45	19.18	17.89	19.20	18.25	20.14	19.59	22.08
75~79세	18.04	17.20	18.05	18.21	17.74	19.61	16.33	20.63	17.16	18.61
80~84세	17.02	16.91	17.15	18.69	18.28	19.61	17.74	24.02	21.70	17.76
85~99세	15.81	16.31	16.33	17.68	17.54	20.47	20.51	20.47	16.89	22.29
전체	16.11	16.10	16.33	16.13	15.14	16.20	15.30	16.94	16.60	17.54

<표 3-5>는 농촌과 도시의 소득분위 및 연령별 외식비 1인당 지출액을 보여준다. 외식비는 젊은 연령층에서 농촌과 도시 모두 많은 지출을 보이며 모든 소득분위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외식비 지출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젊은 연령층에서는 외식비 지출액이 소득분위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소득분위별 지출액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소득 1분위 20~39세 연령층과 소득 5분위 85~99세 연령층의 외식비 지출액은 농촌이 도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5> 소득분위 및 연령별 1인당 월평균 지출액: 외식비

(단위: 만 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20~39세	11.75	8.38	12.72	13.18	8.38	15.01	7.46	13.29	11.78	13.39
40~44세	2.50	5.35	5.79	7.25	6.90	9.50	8.08	9.53	9.64	10.63
45~49세	4.19	3.41	4.76	6.12	5.85	8.58	7.86	9.07	9.80	10.65
50~54세	2.68	4.31	3.29	7.16	5.99	6.88	7.50	8.48	10.74	11.14
55~59세	3.38	4.26	4.92	6.33	5.74	8.06	7.21	9.85	9.62	11.61
60~64세	3.10	3.31	4.02	5.72	4.86	7.45	6.78	9.40	10.18	12.21
65~69세	2.76	3.85	4.01	5.22	5.99	7.13	6.71	8.93	7.58	11.00
70~74세	2.42	2.62	3.15	4.24	4.60	5.67	6.12	8.00	7.38	13.42
75~79세	1.93	2.23	2.39	2.90	3.37	4.86	5.98	7.99	7.14	8.41
80~84세	1.96	2.28	2.19	3.08	3.30	5.41	4.87	6.68	4.76	6.97
85~99세	1.70	2.28	2.32	2.74	3.06	4.91	4.74	6.66	9.47	7.48
전체	3.49	3.84	4.51	5.81	5.28	7.59	6.66	8.90	8.92	10.63

<표 3-6>과 <표 3-7>은 각각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소득분위 및 연령별 1인당 지출액을 보여준다. 교육비는 6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소득분위별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연령층이 공교육비는 50~59세, 사교육비는 40~49세로 나타나 사교육주 소비층이 좀 더 젊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교육비는 농촌과 도시의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나 사교육비의 경우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농촌과 도시의 지출액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젊은 연령층에서는 소득분위가 낮아도 교육비항목에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6> 소득분위 및 연령별 1인당 월평균 지출액: 공교육비

(단위: 만 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20~39세	10.50	0.75	0.18	0.43	0.44	0.70	0.55	0.55	0.14	0.76
40~44세	0.38	0.13	0.02	0.83	0.05	1.05	0.50	0.56	0.84	1.04
45~49세	0.01	0.30	0.77	1.78	1.06	2.50	2.62	2.06	4.73	2.65
50~54세	2.29	0.50	1.95	2.60	3.74	3.86	5.31	5.64	9.51	8.29
55~59세	0.98	0.62	0.48	3.46	3.38	4.72	6.90	6.38	9.97	9.47
60~64세	0.19	0.54	0.51	1.90	2.56	2.85	2.81	4.16	2.59	4.81
65~69세	0.02	0.22	0.56	0.83	1.51	1.36	1.95	1.30	2.06	2.40
70~74세	0.11	0.06	0.33	0.37	0.37	0.84	0.73	0.72	0.00	0.49
75~79세	0.00	0.03	0.18	0.23	0.24	0.54	0.80	0.52	0.06	1.31
80~84세	0.00	0.02	0.09	0.35	0.38	0.95	0.74	1.39	3.49	1.47
85~99세	0.01	0.01	0.09	0.44	0.26	0.69	0.67	1.60	0.11	3.52
전체	1.32	0.29	0.47	1.20	1.27	1.82	2.14	2.26	3.05	3.29

<표 3-7> 소득분위 및 연령별 1인당 월평균 지출액: 사교육비

(단위: 만 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20~39세	0.00	0.78	0.22	0.63	1.81	1.22	3.98	2.65	4.58	5.74
40~44세	3.25	2.03	1.40	1.86	2.22	2.81	5.75	6.18	7.99	12.09
45~49세	0.00	1.22	1.49	2.32	2.63	3.88	4.13	7.86	8.66	14.30
50~54세	0.76	0.97	1.02	2.29	2.33	3.57	3.74	5.74	6.70	10.53
55~59세	0.03	0.47	0.31	1.48	0.94	1.88	2.39	2.70	1.89	4.66
60~64세	0.05	0.09	0.17	0.23	0.33	0.43	0.19	0.83	0.19	1.38
65~69세	0.04	0.13	0.31	0.18	0.18	0.59	0.09	0.49	0.51	0.38
70~74세	0.04	0.05	0.05	0.15	0.05	0.27	0.04	0.57	0.14	0.33
75~79세	0.02	0.03	0.13	0.11	0.16	0.46	0.86	0.86	1.34	3.76
80~84세	0.01	0.03	0.05	0.14	0.13	0.26	0.16	0.42	0.00	3.58
85~99세	0.01	0.01	0.02	0.08	0.03	0.13	0.00	0.52	1.70	0.02
전체	0.38	0.53	0.47	0.86	0.98	1.41	1.94	2.62	3.06	5.16



<표 3-8> 소득분위 및 연령별 1인당 월평균 지출액: 보건의료비

(단위: 만 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20~39세	1.68	6.30	2.26	5.10	3.65	3.71	3.68	4.39	5.80	5.21
40~44세	0.85	2.37	3.93	3.06	4.02	3.41	3.65	3.80	4.32	4.26
45~49세	1.55	5.47	3.75	2.71	3.71	3.08	2.97	3.19	4.17	4.29
50~54세	4.90	3.67	4.49	3.46	2.85	2.38	3.16	3.32	4.76	5.32
55~59세	4.95	4.47	6.38	3.83	3.64	3.64	4.08	4.49	4.93	5.27
60~64세	4.92	6.79	5.75	5.98	7.15	5.93	6.49	5.31	7.32	7.50
65~69세	4.67	5.39	9.03	7.36	7.98	8.58	6.23	8.20	9.12	9.00
70~74세	6.66	4.93	9.82	8.27	11.09	10.34	11.48	10.68	10.91	11.51
75~79세	6.68	5.18	10.34	9.27	11.97	11.49	10.09	14.05	18.44	11.31
80~84세	5.90	5.96	11.40	9.84	15.94	12.85	12.81	15.66	11.52	10.49
85~99세	5.32	5.52	11.10	10.42	17.08	16.17	14.95	14.16	13.14	12.04
전체	4.37	5.10	7.11	6.30	8.10	7.42	7.24	7.93	8.58	7.84

보건의료비는 이전의 외식비, 교육비와 달리 연령별 지출액의 차이도 크고 고령층에서 소득분위별 가장 많은 지출을 보인다. 59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지출액 차이는 크지 않으며 농촌과 도시 모두 75세 이상에서 많은 지출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8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거의 모든 소득분위에서 도시보다 농촌이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9> 소득분위 및 연령별 1인당 월평균 지출액: 교양오락비

(단위: 만 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20~39세	3.75	3.64	3.51	5.20	3.87	5.77	3.60	5.56	4.32	7.79
40~44세	0.16	2.36	2.95	3.57	3.77	3.16	3.91	3.60	3.78	6.18
45~49세	1.01	1.21	1.66	1.37	1.60	1.95	3.01	3.37	4.45	5.82
50~54세	1.89	1.65	0.82	1.83	1.21	1.95	1.91	2.34	5.96	5.89
55~59세	1.11	1.25	0.99	1.68	1.87	2.00	3.02	2.78	5.52	6.57
60~64세	1.02	1.58	1.48	2.26	1.85	2.68	3.00	3.50	4.10	7.89
65~69세	1.33	1.85	2.10	2.24	2.34	3.14	4.02	3.43	4.74	7.70
70~74세	1.43	1.20	1.48	1.97	2.14	3.01	2.53	5.40	3.13	9.80
75~79세	1.19	1.04	1.31	1.62	2.35	2.71	2.47	4.62	3.34	6.07
80~84세	1.05	1.04	1.26	1.35	1.69	2.73	2.42	4.77	3.10	5.09
85~99세	0.93	0.91	0.95	1.35	1.28	2.14	1.43	1.90	0.74	4.38
전체	1.35	1.61	1.68	2.22	2.18	2.84	2.85	3.75	3.93	6.65

외식비, 교육비, 교양오락비의 경우 50세 이전의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소비하는 항목으로 나타난다.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교양오락비 지출은 감소하는데 농촌의 20~39세 연령층의 경우 소득분위별 교양오락비 지출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농촌과 도시의 지출액 차이도 크지 않으나 소득 4분위와 소득 5분위의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교양오락비 지출의 차이가 발생한다.

##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 제 1절 소비지출 결정요인 분석

본 연구는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항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GLS 분석을 시행하였다. 패널GLS 분석 시 잔차항에 대한 이분산성 검정을 위해 우도비검정(Likelihood Ratio; LR test)을 수행 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오차항의 동분산성)이 기각되어 이분산성이 확인된다. 또한 자기상관 검정을 위해 Wooldridge test를 수행하였고 이 또한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1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음)이 기각되어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을 동시에 가정한 패널GLS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정식비 지출 결정요인의 경우 전체 표본은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다. 지역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므로 가정식비 지출은 농촌일 때 더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촌은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도시는 모든 변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농촌과 도시 모두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정식비 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구주가 남성일 경우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보다 지출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두 집단 모두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정식비 지출이 많아지지만 초 고령층으로 가게 되면 지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지출이 많아지며 부채가 적을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가정식비가 증가하며 가구 내 상용근로자 수와 임시·일용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가정식비 지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주의 교육수준 변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 농촌과 달리 도시의 경우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식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외식비 지출 결정요인 역시 전체 표본은 모든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지역 변수가 유의미하므로 농촌일 경우 외식비 지출이 감소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농촌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주의 성별이 남성일 경우,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식비 지출이 증가하며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식비 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외식비 지출이 증가하며 가구 내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수가 많으면 외식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도 농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주의 성별이 남성일 경우,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식비 지출이 증가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외식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구 내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수가 많으면 외식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촌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외식비지출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시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외식비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식비 지출 결정요인 분석결과와 외식비 지출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비교해 볼 때 농촌과 도시 모두 가정식비는 가구주가 남성일 경우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보다 지출이 적게 나타나며, 외식비는 이와 반대로 가구주가 남성일 경우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보다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구주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가정식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외식비는 감소한다. 가구 내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가정식비 지출은 줄어드는 반면 외식비 지출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공교육비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전체 표본에서는 가구주 특성의 영향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지역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농촌과 도시의 지역 차이가 공교육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촌의 공교육비 지출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모두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가구원 수, 가구주 성별, 가구주 혼인상태 변인만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촌과 도시지역 둘 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공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며 가구주의 성별이

남성일 경우와 가구주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더 적은 공교육비 지출을 하게 된다. 가처분소득과 부채 변수는 농촌과 도시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교육비의 경우에는 가처분소득과 자산 변수가 전체 표본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외의 다른 변수들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며 지역 변수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나 농촌일 경우 도시에 비하여 사교육비 지출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처분소득과 자산 변수는 농촌과 도시로 표본을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에도 농촌과 도시의 경우에서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교육비는 공교육비와는 달리 가구주의 연령이 적을수록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지역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보건의료비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전체 표본에서는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지역적 차이 역시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농촌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보건의료비를 더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도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보건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가 남성일 경우 보건의료비 지출이 더 적은 것과 가구주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지출이 많아지는 것은 농촌과 도시가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 역시 농촌과 도시 모두 보건의료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교양오락비 지출은 전체 표본일 경우 가구주의 혼인상태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며 농촌의 교양오락비 지출이 도시의 교양오락비 지출보다 적은 것이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농촌지역에만 가구원 수 변수가 유의미하게 작용하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많은 교양오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농촌은 가구주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교양오락비 지출이 감소하지만 도시는 가구주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교양오락비 지출이 증가한다. 농촌과 도시 모두 가구주 성별이 여성일 경우 더 많은 교양오락비 지출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교양오락비 지출은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가처분소득이 많을수록 교양오락비 지출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결정요인을 회귀분석 한 이후 그 결과가 두 집단 간에 유의하게 다른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차우 검정(chow test)을 실행하였고 p값이  $7.388e-18$  으로 매우 작아 귀무가설(농촌과 도시의 모든 계수가 서로 동일)을 기각하여 농촌과 도시로 집단을 나누어 분석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자세한 추정결과는 <표 4-1>부터 <표 4-6>에 제시하였다.

<표 4-1> 소비지출 결정요인 추정결과: 가정식비

변수 \ 구분	GLS		
	전체	농촌	도시
지역	-0.049 *** (0.00)	-	-
가구원 수	0.120 *** (0.00)	0.096 *** (0.00)	0.127 *** (0.00)
가구주 성별	-0.035 *** (0.01)	-0.032 *** (0.01)	-0.035 *** (0.01)
가구주 연령	0.016 *** (0.00)	0.009 *** (0.00)	0.016 *** (0.00)
가구주 연령제곱	-0.010 *** (0.00)	-0.007 *** (0.00)	-0.010 *** (0.00)
가구주 교육수준	0.006 *** (0.00)	0.000 (0.00)	0.008 *** (0.00)
가구주 혼인상태	0.139 *** (0.01)	0.119 *** (0.01)	0.146 *** (0.01)
가처분 소득	0.245 *** (0.00)	0.274 *** (0.01)	0.237 *** (0.00)
부채	-0.003 *** (0.00)	-0.004 *** (0.00)	-0.003 *** (0.00)
자산	0.011 *** (0.00)	0.014 *** (0.00)	0.010 *** (0.00)
상용근로자 수	-0.040 *** (0.00)	-0.065 *** (0.01)	-0.039 *** (0.00)
임시·일용근로자 수	-0.020 *** (0.00)	-0.024 *** (0.00)	-0.020 *** (0.00)
_cons	0.640 *** (0.04)	0.787 *** (0.07)	0.617 *** (0.05)
Wald chi <sup>2</sup>	48,539 ***	17,307 ***	35,831 ***
N	39,672	10,329	29,283

주: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표 4-2> 소비지출 결정요인 추정결과: 외식비

변수 \ 구분	GLS		
	전체	농촌	도시
지역	-0.191 *** (0.01)	-	-
가구원 수	0.097 *** (0.00)	0.116 *** (0.01)	0.089 *** (0.00)
가구주 성별	0.196 *** (0.01)	0.144 *** (0.03)	0.216 *** (0.01)
가구주 연령	0.020 *** (0.00)	-0.009 ** (0.00)	0.031 *** (0.00)
가구주 연령제곱	-0.030 *** (0.00)	-0.004 (0.00)	-0.039 *** (0.00)
가구주 교육수준	0.012 *** (0.00)	0.010 *** (0.00)	0.012 *** (0.00)
가구주 혼인상태	-0.267 *** (0.01)	-0.301 *** (0.03)	-0.252 *** (0.01)
가처분 소득	0.588 *** (0.01)	0.614 *** (0.01)	0.576 *** (0.01)
부채	0.002 *** (0.00)	0.005 ** (0.00)	0.002 *** (0.00)
자산	0.006 *** (0.00)	-0.005 * (0.00)	0.009 *** (0.00)
상용근로자 수	0.195 *** (0.01)	0.346 *** (0.01)	0.175 *** (0.01)
임시·일용근로자 수	0.152 *** (0.00)	0.183 *** (0.01)	0.140 *** (0.00)
_cons	-2.594 *** (0.07)	-2.210 *** (0.16)	-2.794 *** (0.08)
Wald chi <sup>2</sup>	89,823 ***	22,780 ***	56,397 ***
N	39,672	10,329	29,283

주: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표 4-3> 소비지출 결정요인 추정결과: 공교육비

변수 \ 구분	GLS		
	전체	농촌	도시
지역	-0.002 (0.00)	-	-
가구원 수	0.274 *** (0.00)	0.223 *** (0.01)	0.282 *** (0.01)
가구주 성별	-0.036 *** (0.00)	-0.013 *** (0.00)	-0.052 *** (0.01)
가구주 연령	0.005 *** (0.00)	0.001 (0.00)	0.014 *** (0.00)
가구주 연령제곱	-0.005 *** (0.00)	-0.001 (0.00)	-0.012 *** (0.00)
가구주 교육수준	0.002 *** (0.00)	0.000 (0.00)	0.003 *** (0.00)
가구주 혼인상태	-0.229 *** (0.01)	-0.207 *** (0.01)	-0.219 *** (0.01)
가처분 소득	0.000 (0.00)	0.000 (0.00)	0.000 (0.00)
부채	0.000 (0.00)	0.000 (0.00)	0.001 (0.00)
자산	-0.001 ** (0.00)	0.000 (0.00)	-0.001 *** (0.00)
상용근로자 수	-0.019 *** (0.00)	-0.003 (0.01)	-0.027 *** (0.01)
임시·일용근로자 수	-0.001 (0.00)	0.000 (0.00)	-0.003 * (0.00)
_cons	-0.369 *** (0.04)	-0.223 *** (0.04)	-0.628 *** (0.06)
Wald chi <sup>2</sup>	3,818 ***	590 ***	3,252 ***
N	39,672	10,329	29,283

주: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표 4-4> 소비지출 결정요인 추정결과: 사교육비

변수 \ 구분	GLS		
	전체	농촌	도시
지역	-0.020 *** (0.00)	-	-
가구원 수	0.223 *** (0.00)	0.060 *** (0.01)	0.305 *** (0.01)
가구주 성별	-0.121 *** (0.01)	-0.017 *** (0.00)	-0.158 *** (0.01)
가구주 연령	-0.075 *** (0.00)	-0.017 *** (0.00)	-0.087 *** (0.00)
가구주 연령제곱	0.048 *** (0.00)	0.011 *** (0.00)	0.055 *** (0.00)
가구주 교육수준	0.004 *** (0.00)	0.000 (0.00)	0.007 *** (0.00)
가구주 혼인상태	-0.055 *** (0.01)	-0.034 *** (0.01)	-0.063 *** (0.01)
가처분 소득	0.001 (0.00)	0.000 (0.00)	0.003 (0.00)
부채	0.001 ** (0.00)	0.000 (0.00)	0.001 ** (0.00)
자산	0.000 (0.00)	0.000 (0.00)	0.000 (0.00)
상용근로자 수	-0.021 *** (0.00)	0.002 (0.00)	-0.044 *** (0.00)
임시·일용근로자 수	-0.023 *** (0.00)	0.002 (0.00)	-0.038 *** (0.00)
_cons	2.631 *** (0.07)	0.583 *** (0.09)	2.929 *** (0.09)
Wald chi <sup>2</sup>	5,467 ***	144 ***	6,562 ***
N	39,672	10,329	29,283

주: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표 4-5> 소비지출 결정요인 추정결과: 보건의료비

변수 \ 구분	GLS		
	전체	농촌	도시
지역	0.025 * (0.01)	-	-
가구원 수	0.012 * (0.01)	-0.049 *** (0.01)	0.058 *** (0.01)
가구주 성별	-0.262 *** (0.02)	-0.336 *** (0.04)	-0.155 *** (0.03)
가구주 연령	0.007 * (0.00)	0.008 (0.01)	0.010 (0.01)
가구주 연령제곱	0.012 *** (0.00)	0.006 (0.01)	0.010 ** (0.01)
가구주 교육수준	0.007 *** (0.00)	0.006 * (0.00)	0.011 *** (0.00)
가구주 혼인상태	0.526 *** (0.02)	0.583 *** (0.04)	0.449 *** (0.03)
가처분 소득	0.440 *** (0.01)	0.515 *** (0.02)	0.363 (0.01)
부채	0.007 *** (0.00)	0.008 *** (0.00)	0.007 *** (0.00)
자산	0.024 *** (0.00)	0.014 *** (0.00)	0.015 *** (0.00)
상용근로자 수	-0.061 *** (0.01)	-0.167 *** (0.03)	-0.050 *** (0.01)
임시·일용근로자 수	-0.060 *** (0.01)	-0.107 *** (0.02)	-0.043 *** (0.01)
_cons	-2.630 *** (0.12)	-2.690 *** (0.26)	-2.294 *** (0.21)
Wald chi <sup>2</sup>	8,031 ***	1,961 ***	2,704 ***
N	39,672	10,329	29,283

주: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표 4-6> 소비지출 결정요인 추정결과: 교양오락비

변수 \ 구분	GLS		
	전체	농촌	도시
지역	-0.063 *** (0.01)	-	-
가구원 수	0.020 *** (0.00)	0.019 ** (0.01)	0.009 (0.01)
가구주 성별	-0.114 *** (0.01)	-0.066 *** (0.02)	-0.133 *** (0.01)
가구주 연령	-0.029 *** (0.00)	-0.040 *** (0.00)	-0.019 *** (0.00)
가구주 연령제곱	0.018 *** (0.00)	0.024 *** (0.00)	0.011 *** (0.00)
가구주 교육수준	0.028 *** (0.00)	0.021 *** (0.00)	0.029 *** (0.00)
가구주 혼인상태	-0.003 (0.01)	-0.036 ** (0.02)	0.032 ** (0.01)
가처분 소득	0.387 *** (0.01)	0.251 *** (0.01)	0.446 *** (0.01)
부채	0.005 *** (0.00)	0.005 *** (0.00)	0.005 *** (0.00)
자산	0.027 *** (0.00)	0.016 *** (0.00)	0.032 *** (0.00)
상용근로자 수	0.233 *** (0.01)	0.266 *** (0.02)	0.203 *** (0.01)
임시·일용근로자 수	-0.009 * (0.00)	0.000 (0.01)	-0.017 *** (0.01)
_cons	-0.935 *** (0.08)	0.513 *** (0.17)	-1.723 *** (0.10)
Wald chi <sup>2</sup>	37,505 ***	5,051 ***	31,327 ***
N	39,672	10,329	29,283

주: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 제 2절 동일 계층 소비지출 요인분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출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대표적 요소인 소득과 연령을 통제하여 소득계층이 같고 연령 또한 같은 집단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을 때 농촌과 도시의 소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동일한 소득, 동일한 연령대로 제한된 범주 내에서 발생하는 농촌과 도시가계소비지출 차이의 발생 원인을 Oaxaca 요인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차이 발생요인을 가구특성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인 특성효과와 가구특성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인 계수효과로 분해한다. 특성효과는 농촌과 도시 여부 이외의 다른 독립변수의 차이로부터 발생한 소비지출의 차이를 보여주며 계수효과는 다른 독립변수가 동일할 경우의 농촌과 도시 지역 차이로부터 발생한 소비지출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제 3 장 <표 3-4>부터 <표 3-9>까지에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과 도시의 지출을 소득분위별, 연령별로 나누어 Oaxaca 요인분해 분석을 시행할 동일 계층을 선정하였다. 먼저 기존에 5세 단위로 연령을 세분화하고 소득 또한 5분위로 세분화 하였을 때 동일한 연령 및 동일한 소득 조건에 포함되는 n이 50 미만인 경우도 존재하여 표본이 충분하지 않는다. 때문에 충분한 n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령구분을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청장년층과 65세 이상 99세 이하의 노년층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청장년층과 노년층으로 집단을 나눈 다음, 동일한 소득분위에서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항목별 지출액 차이가 큰 집단을 선택하였다. <표 4-7>은 <표 3-4>부터 <표 3-9>를 가지고 연령을 청장년층과 노년층으로 구분하였을 때 연령별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의 합과 이를 도시 대비 농촌의 비중으로 정리한 것이고, <그림 4-1>부터 <그림 4-6>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정리한 바를 살펴 본 결과, 가정식비 항목의 소득 4분위 노년층, 외식비 항목의 소득 3분위 청장년층, 공교육비 항목의 소득 1분위 청장년층, 사교육비 항목의 소득 3분위 노년층, 보건의료비 항목의 소득 1분위 청장년층, 교양오락비 항목의 소득 5분위 노년층이 도시 대비 농촌

소비지출의 비중 차이가 가장 큰 집단이다.

사교육비 항목에서 소득 3분위 노년층의 경우 도시 대비 농촌의 비중 차이는 크지만 지출액이 크지 않아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청장년층 집단의 소득 4분위와 소득 5분위 중 비중 차이가 더 큰 소득 5분위를 분석대상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공교육비 항목의 경우 소득 1분위 청장년층의 비중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농촌의 소득 1분위 20~39세 집단에서 공교육비 지출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소득 1분위 청장년층의 공교육비 지출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농촌지역 소득 1분위 20~39세 집단의 n이 4로 너무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큰 비중 차이를 보이는 청장년층 소득 2분위 집단을 공교육비 항목의 분석대상에 포함한다. 보건의료비 항목에서 소득 1분위 청장년층의 경우 도시 대비 농촌의 지출 비중 차이가 크지만 요인분해 분석결과 농촌과 도시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보건의료비 지출에 있어 농촌과 도시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 중 지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소득 2분위 노년층 집단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또한 보건의료비의 경우 유일하게 평균지출과 1인당 평균지출 모두 농촌이 도시보다 많은 항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소득 2분위 노년층과 더불어 청장년층에서도 소득 2분위의 경우를 추가로 분석한다. Oaxaca 요인분해 방법 중에서도 Oaxaca-Ransom 요인분해 분석을 실행하며 동일 소득, 동일 연령을 기준으로 집단을 한정하였기에 독립변수에서 연령과 소득변수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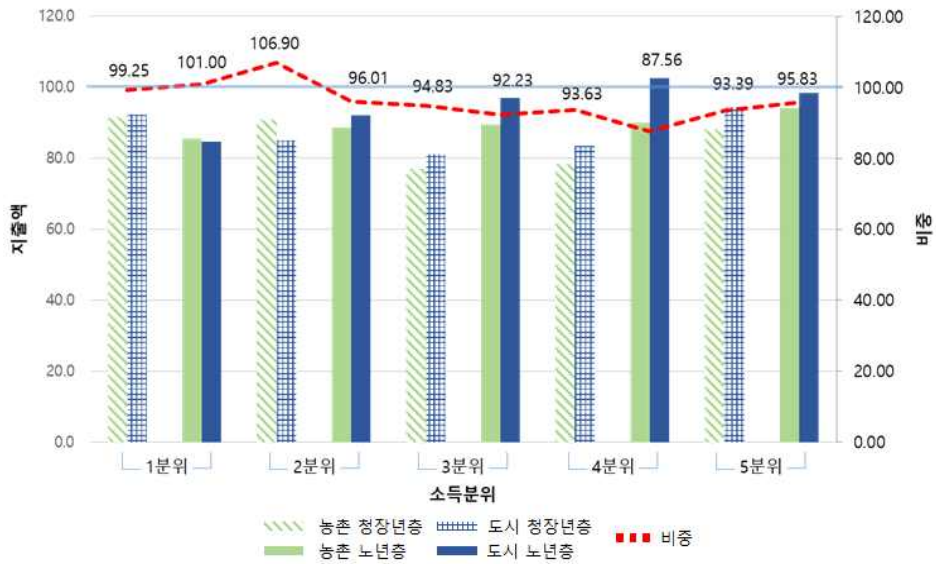
<표 4-7> 농촌과 도시 청장년층 및 노년층의 1인당 지출액 합과 비중  
(단위: 만 원, %)

소득 분위	연령층	가정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농촌	도시	비중	농촌	도시	비중	농촌	도시	비중
1	청장년층	91.6	92.3	99.25	27.6	29.0	95.11	14.4	2.8	505.28
	노년층	85.6	84.7	101.00	10.77	13.26	81.22	0.14	0.34	41.18
2	청장년층	91.1	85.2	106.90	35.5	45.8	77.58	3.9	11.0	35.55
	노년층	88.6	92.2	96.01	14.1	18.2	77.34	1.3	2.2	56.31
3	청장년층	76.9	81.1	94.83	37.7	55.5	67.99	11.2	15.7	71.62
	노년층	89.6	97.2	92.23	20.3	28.0	72.62	2.8	4.4	63.01
4	청장년층	78.3	83.7	93.63	44.9	59.6	75.29	18.7	19.4	96.59
	노년층	90.0	102.7	87.56	28.4	38.3	74.28	4.9	5.5	88.43
5	청장년층	88.3	94.6	93.39	61.8	69.6	88.70	27.8	27.0	102.81
	노년층	94.3	98.4	95.83	36.3	47.3	76.84	5.7	9.2	6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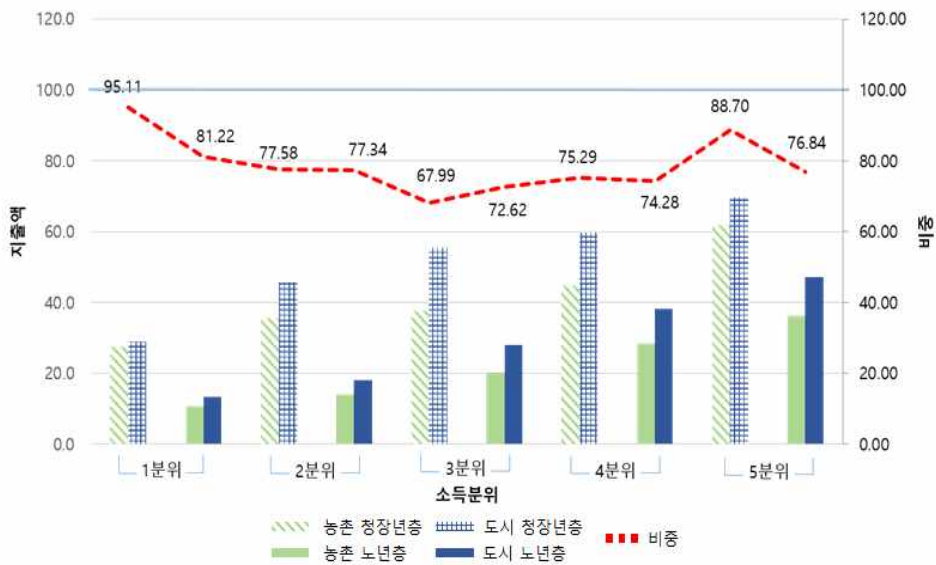
소득 분위	연령층	사교육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농촌	도시	비중	농촌	도시	비중	농촌	도시	비중
1	청장년층	4.1	5.6	73.56	18.9	29.1	64.84	8.9	11.7	76.48
	노년층	0.1	0.3	48.00	29.2	27.0	108.34	5.9	6.0	98.18
2	청장년층	4.6	8.8	52.33	26.6	24.1	110.02	11.4	15.9	71.72
	노년층	0.6	0.7	84.85	51.7	45.2	114.46	7.1	8.5	83.24
3	청장년층	10.3	13.8	74.40	25.0	22.2	112.96	14.2	17.5	80.93
	노년층	0.6	1.7	32.16	64.1	59.4	107.79	9.8	13.7	71.38
4	청장년층	20.2	26.0	77.73	24.0	24.5	98.08	18.5	21.2	87.23
	노년층	1.2	2.9	40.21	55.6	62.8	88.54	12.9	20.1	63.97
5	청장년층	30.0	48.7	61.62	31.3	31.9	98.27	28.1	40.1	70.08
	노년층	3.7	8.1	45.72	63.1	54.4	116.15	15.1	33.0	45.55

주: 1) 비중은 (농촌/도시)\*100을 의미함.

<그림 4-1> 농촌과 도시 청장년층 및 노년층의 1인당 지출액 합과 비중: 가정식비  
(단위: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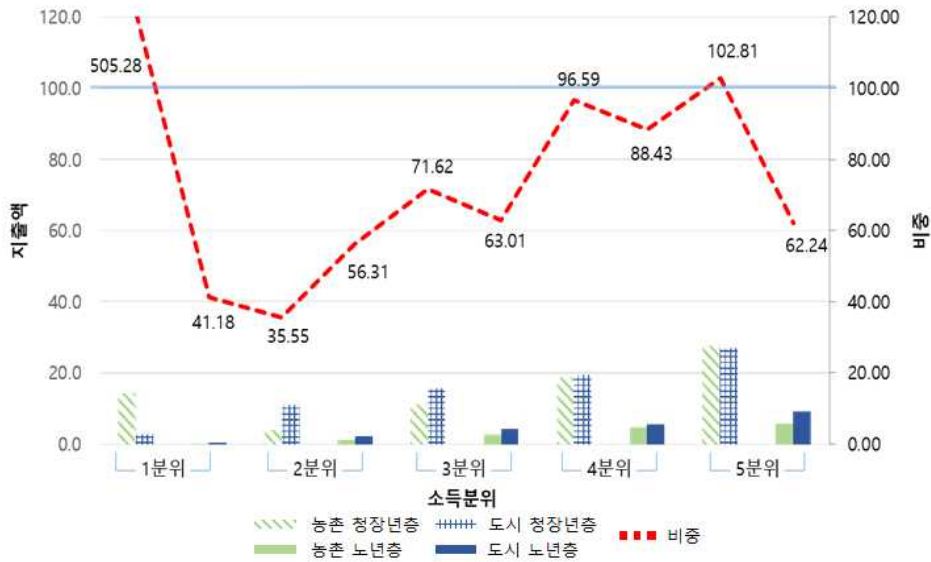
<그림 4-2> 농촌과 도시 청장년층 및 노년층의 1인당 지출액 합과 비중: 외식비  
(단위: 만 원, %)





<그림 4-3> 농촌과 도시 청장년층 및 노년층의 1인당 지출액 합과 비중: 공교육비

(단위: 만 원, %)



<그림 4-4> 농촌과 도시 청장년층 및 노년층의 1인당 지출액 합과 비중: 사교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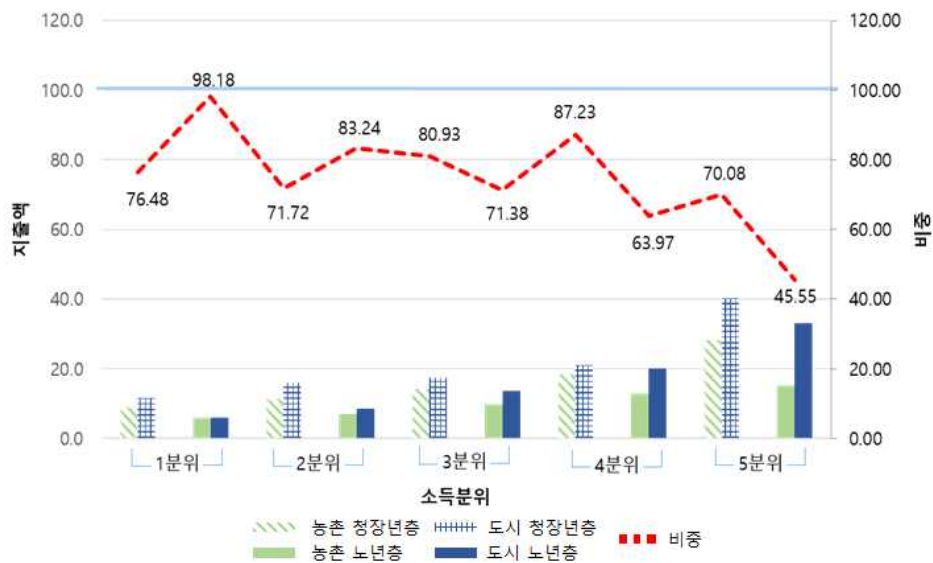
(단위: 만 원, %)



<그림 4-5> 농촌과 도시 청장년층 및 노년층의 1인당 지출액 합과 비중: 보건의료비  
(단위: 만 원, %)



<그림 4-6> 농촌과 도시 청장년층 및 노년층의 1인당 지출액 합과 비중: 교양오락비  
(단위: 만 원, %)



노년층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은 가정식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이다. 가정식비의 경우 노년층 소득 4분위 집단에서 농촌과 도시의 지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Oaxaca-Ransom 분해모형 분석을 통해 추정된 노년층 소득 4분위의 가정식비 월평균 지출은 농촌 3.731, 도시 3.821로 차이는 0.090이다. 지출 차이 0.090은 도시의 월평균 지출이 농촌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0.090은 특성효과와 계수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노년층 소득 4분위 집단의 가정식비 지출에서 가구의 각기 다른 특성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차이는 0.002로 2.22%에 불과하다. 나머지 97.78%는 계수효과, 즉 농촌과 도시의 가구가 같은 조건일 때 농촌과 도시 지역 차이에서 기인하는 소비 차이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년층 소득 4분위의 가정식비 지출은 농촌과 도시가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특성효과의 합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이 요인분해 분석이 이 집단의 소비지출 차이를 온전히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계층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특성효과의 합계와 계수효과의 합계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이 역시 계수효과가 전체 차이에 미치는 영향 비중이 100%가 넘는 등 농촌과 도시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결과에서 농촌과 도시의 가정식비 지출 차이에 있어 지역 차이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노년층에서 농촌과 도시의 지출 차이가 두드러지는 또 다른 항목은 보건의료비이다. 노년층 보건의료비의 경우 소득 2분위 집단에서 농촌과 도시의 지출 차이가 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함과 동시에 크게 나타난다. 추정된 농촌의 노년층 소득 2분위 보건의료비 월평균 지출은 2.348이며 도시는 2.222로 농촌의 보건의료비 예측 지출이 도시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과 도시의 차이는 0.127이며 그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57.48%의 특성효과와 42.52%의 계수효과로 분해되어 특성효과가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는 노년층 소득 2분위 집단의 경우, 농촌과 도시의 보건의료비 지출 차이는 지역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보다 가구의 성격을 결정

짓는 특성요인에 의한 차이의 영향이 더 크다는 의미이다. 특성효과  
의 경우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와 자산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중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가장 큰 비중으로  
특성효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계수효과  
의 경우 자산과 임시·일용근로자 수만 유의미하게 나타나는데 자산 변수의 영향 정도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교양오락비 역시 노년층에서 비중 차이가 큰 항목이며 그 중 소득 5  
분위에서 농촌과 도시의 지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전체  
차이는 0.522인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 예측 소비지출이 2.540으로 농촌  
예측 소비지출 2.017보다 조금 크게 추정되며 차이 요인분해 결과 특성  
효과에 기인하는 비중이 29.89%, 계수효과에 기인하는 비중이 70.11%로  
농촌과 도시의 가구가 같은 조건일 때 지역 차이에서 오는 교양오락비  
항목 지출액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청장년층에서 농촌과 도시의 지출 비중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은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보건의료비이다. 외식비는 청장년층 소득 3  
분위에서 농촌과 도시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요인분해 분석으로  
추정된 농촌 청장년층 소득 3분위의 외식비 지출은 2.591이며 도시는  
2.943으로 차이는 0.352만큼이다. 이 차이는 특성효과로 20.74%가 설명되며  
계수효과로 79.26%가 설명된다. 계수효과가 큰 비중으로 차이를 설명  
하는 것으로 보아 청장년층 소득 3분위의 외식비 지출 차이는 대부분이  
가구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요인인 지역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성효과  
의 경우 부채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가구주의 혼인상태의 영향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상용근로자 수이다. 계수효과  
의 경우에는 자산 변수만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어 독립변수별로 분해해서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공교육비를 포함하여 사교육비까지 교육비 항목에서 특히 청장년층의  
농촌과 도시 지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공교육비는 청장년층 소득 2  
분위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추정결과 농촌 예측 공교육비 지출이

0.355, 도시 예측 공교육비 지출이 0.820으로 차이가 0.465인 것으로 나타난다. 0.465는 0.110만큼 특성효과에서 기인하며 0.355만큼 계수효과에서 기인한다. 농촌과 도시 차이 중 특성효과에서 기인하는 23.66% 중에 가구주 성별의 영향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계수효과에서 기인하는 76.34% 중에서는 가구원 수의 영향 비중이 크다. 앞서 공교육비 지출 결정 요인 분석의 결과에서는 지역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에 반해 동일 계층 공교육비 지출은 지역 차이가 큰 영향요인이 된다. 사교육비는 청장년층 소득 5분위에서 도농 간 지출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추정된 전체 차이는 0.788로 공교육비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39.85%는 특성효과에서, 60.03%는 계수효과에서 기인하는데 동일 가구일 때에 지출 차이에 미치는 지역 차이의 영향 정도가 공교육비 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는 소득 5분위의 경우 자녀교육에 있어 지역에 관계없이 농촌에서도 도시만큼의 사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는 바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성효과에서는 가구원 수 변수 이외의 모든 변수들이 유의미한 결과 값을 나타내는데 특성효과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 차이의 주요 요인이 가구의 교육수준으로 그 비중이 35.66%로 가장 높다.

청장년층의 보건의료비 항목에서 농촌과 도시의 지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큰 차이를 보이는 집단이 청장년층 소득 2분위 집단이다. 노년층 보건의료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촌의 보건의료비 예측 지출이 도시의 보건의료비 예측 지출보다 크게 추정된다. 전체 차이는 0.233이며 16.74%가 특성효과에서 기인하고 82.83%가 지역효과에서 기인한다. 청장년층 소득 2분위의 보건의료비 농촌과 도시 차이는 가구특성 차이에 기인하는 비중보다 지역 차이에 기인하는 비중이 높다.

자세한 추정결과는 <표 4-8>부터 <표 4-14>에 제시하였다.

<표 4-8> 동일 계층 소비지출 차이의 요인분해: 가정식비

노년층 소득 4분위		추정 계수	표준오차	비중(%)
농촌 예측 소비지출		3.731 ***	0.02	
도시 예측 소비지출		3.821 ***	0.01	
전체 차이(①+②)		0.090 ***	0.02	100.0
특성효과	합계 ①	0.002	0.01	2.22
	가구원 수	-0.010	0.01	-11.11
	가구주 성별	0.008 **	0.00	8.89
	가구주 교육수준	0.030 ***	0.00	33.33
	가구주 혼인상태	-0.008 **	0.00	-8.89
	부채	0.002	0.00	2.22
	자산	-0.001	0.00	-1.11
	상용근로자 수	-0.016 ***	0.00	-17.78
	임시·일용근로자 수	-0.004	0.00	-4.44
계수효과	합계 ②	0.088 ***	0.02	97.78
	가구원 수	0.031	0.05	34.44
	가구주 성별	-0.138	0.09	-153.33
	가구주 교육수준	0.089 **	0.04	98.89
	가구주 혼인상태	0.038	0.07	42.22
	부채	-0.020	0.01	-22.22
	자산	-0.183 **	0.08	-203.33
	상용근로자 수	0.001	0.01	1.11
	임시·일용근로자 수	-0.012	0.01	-13.33
_cons		0.282 **	0.11	313.33

주: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비중은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전체 차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표 4-9> 동일 계층 소비지출 차이의 요인분해: 외식비

청장년층 소득 3분위		추정 계수	표준오차	비중(%)
농촌 예측 소비지출		2.591 ***	0.03	
도시 예측 소비지출		2.943 ***	0.01	
전체 차이(①+②)		0.352 ***	0.03	100.0
특성효과	합계 ①	0.073 ***	0.01	20.74
	가구원 수	-0.014 ***	0.00	-3.98
	가구주 성별	-0.027 ***	0.01	-7.67
	가구주 교육수준	0.023 ***	0.00	6.53
	가구주 혼인상태	0.037 ***	0.01	10.51
	부채	0.002	0.00	0.57
	자산	0.011 **	0.01	3.13
	상용근로자 수	0.030 ***	0.01	8.52
	임시·일용근로자 수	0.010 *	0.01	2.84
계수효과	합계 ②	0.279 ***	0.03	79.26
	가구원 수	-0.116	0.08	-32.95
	가구주 성별	-0.077	0.09	-21.88
	가구주 교육수준	0.158	0.10	44.89
	가구주 혼인상태	0.055	0.06	15.63
	부채	-0.016	0.03	-4.55
	자산	0.189 **	0.09	53.69
	상용근로자 수	-0.009	0.02	-2.56
	임시·일용근로자 수	0.029	0.03	8.24
_cons		0.066	0.18	18.75

주: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비중은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전체 차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표 4-10> 동일 계층 소비지출 차이의 요인분해: 공교육비

청장년층 소득 2분위		추정 계수	표준오차	비중(%)
농촌 예측 소비지출		0.355 ***	0.04	
도시 예측 소비지출		0.820 ***	0.03	
전체 차이(①+②)		0.465 ***	0.05	100.0
특성효과	합계 ①	0.110 ***	0.04	23.66
	가구원 수	-0.048	0.04	-10.32
	가구주 성별	0.049 ***	0.01	10.54
	가구주 교육수준	0.041 ***	0.01	8.82
	가구주 혼인상태	0.019 **	0.01	4.09
	부채	0.013 **	0.01	2.80
	자산	0.020 **	0.01	4.30
	상용근로자 수	0.013 **	0.01	2.80
	임시·일용근로자 수	0.002	0.00	0.43
계수효과	합계 ②	0.355 ***	0.05	76.34
	가구원 수	0.682 ***	0.13	146.67
	가구주 성별	-0.021	0.06	-4.52
	가구주 교육수준	0.079	0.10	16.99
	가구주 혼인상태	-0.104 **	0.04	-22.37
	부채	0.033	0.04	7.10
	자산	-0.070	0.11	-15.05
	상용근로자 수	-0.002	0.02	-0.43
	임시·일용근로자 수	0.109	0.08	23.44
_cons		-0.351 *	0.19	-75.48

주: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비중은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전체 차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표 4-11> 동일 계층 소비지출 차이의 요인분해: 사교육비

청장년층 소득 5분위		추정 계수	표준오차	비중(%)
농촌 예측 소비지출		1.526 ***	0.06	
도시 예측 소비지출		2.314 ***	0.03	
전체 차이(①+②)		<b>0.788 ***</b>	<b>0.07</b>	<b>99.87</b>
특성효과	합계 ①	<b>0.314 ***</b>	<b>0.04</b>	<b>39.85</b>
	가구원 수	0.006	0.03	0.76
	가구주 성별	0.009 **	0.00	1.14
	가구주 교육수준	0.281 ***	0.02	35.66
	가구주 혼인상태	-0.010 **	0.01	-1.27
	부채	0.012 **	0.00	1.52
	자산	0.038 ***	0.01	4.82
	상용근로자 수	-0.070 ***	0.01	-8.88
	임시·일용근로자 수	0.049 **	0.02	6.22
계수효과	합계 ②	<b>0.473 ***</b>	<b>0.05</b>	<b>60.03</b>
	가구원 수	0.718 ***	0.21	91.12
	가구주 성별	-0.599 **	0.30	-76.02
	가구주 교육수준	-0.164	0.24	-20.81
	가구주 혼인상태	0.486 **	0.21	61.68
	부채	0.082	0.05	10.41
	자산	0.974 ***	0.32	123.60
	상용근로자 수	-0.196 ***	0.07	-24.87
	임시·일용근로자 수	-0.195 ***	0.04	-24.75
_cons		-0.633	0.46	-80.33

주: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비중은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전체 차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표 4-12> 동일 계층 소비지출 차이의 요인분해: 보건의료비(노년층)

노년층 소득 2분위		추정 계수	표준오차	비중(%)
농촌 예측 소비지출		2.348 ***	0.02	
도시 예측 소비지출		2.222 ***	0.02	
전체 차이(①+②)		-0.127 ***	0.03	100.0
특성효과	합계 ①	-0.073 ***	0.01	57.48
	가구원 수	0.003	0.00	-2.36
	가구주 성별	0.008 *	0.00	-6.30
	가구주 교육수준	-0.012 **	0.01	9.45
	가구주 혼인상태	-0.042 ***	0.01	33.07
	부채	-0.001	0.00	0.79
	자산	-0.024 ***	0.01	18.90
	상용근로자 수	-0.002	0.00	1.57
	임시·일용근로자 수	-0.002	0.00	1.57
계수효과	합계 ②	-0.054 **	0.02	42.52
	가구원 수	0.049	0.10	-38.58
	가구주 성별	0.089	0.07	-70.08
	가구주 교육수준	-0.012	0.04	9.45
	가구주 혼인상태	-0.069	0.07	54.33
	부채	0.008	0.01	-6.30
	자산	0.297 ***	0.08	-233.86
	상용근로자 수	0.001	0.00	-0.79
	임시·일용근로자 수	0.028 *	0.02	-22.05
_cons		-0.445 ***	0.12	350.39

주: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비중은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전체 차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표 4-13> 동일 계층 소비지출 차이의 요인분해: 보건의료비(청장년층)

청장년층 소득 2분위		추정 계수	표준오차	비중(%)
농촌 예측 소비지출		1.749 ***	0.05	
도시 예측 소비지출		1.516 ***	0.03	
전체 차이(①+②)		-0.233 ***	0.06	99.57
특성효과	합계 ①	-0.039 *	0.02	16.74
	가구원 수	-0.002	0.00	0.86
	가구주 성별	0.026 ***	0.01	-11.16
	가구주 교육수준	-0.027 *	0.01	11.59
	가구주 혼인상태	-0.015 **	0.01	6.44
	부채	0.015 **	0.01	-6.44
	자산	-0.027 ***	0.01	11.59
	상용근로자 수	-0.007	0.01	3.00
	임시·일용근로자 수	-0.002	0.00	0.86
계수효과	합계 ②	-0.193 ***	0.06	82.83
	가구원 수	0.174	0.14	-74.68
	가구주 성별	0.104	0.09	-44.64
	가구주 교육수준	-0.201	0.14	86.27
	가구주 혼인상태	-0.032	0.06	13.73
	부채	0.004	0.04	-1.72
	자산	0.178	0.13	-76.39
	상용근로자 수	0.035	0.02	-15.02
	임시·일용근로자 수	-0.076	0.07	32.62
	_cons	-0.378	0.24	162.23

주: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비중은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전체 차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표 4-14> 동일 계층 소비지출 차이의 요인분해: 교양오락비

노년층 소득 5분위		추정 계수	표준오차	비중(%)
농촌 예측 소비지출		2.017 ***	0.07	
도시 예측 소비지출		2.540 ***	0.03	
전체 차이(①+②)		0.522 ***	0.08	100.0
특성효과	합계 ①	0.156 ***	0.04	29.89
	가구원 수	0.000	0.00	0.00
	가구주 성별	0.000	0.00	0.00
	가구주 교육수준	0.186 ***	0.03	35.63
	가구주 혼인상태	0.001	0.01	0.19
	부채	0.010	0.01	1.92
	자산	-0.078 ***	0.02	-14.94
	상용근로자 수	0.032 **	0.01	6.13
	임시·일용근로자 수	0.004	0.00	0.77
계수효과	합계 ②	0.366 ***	0.07	70.11
	가구원 수	-0.046	0.21	-8.81
	가구주 성별	-0.126	0.33	-24.14
	가구주 교육수준	0.241	0.21	46.17
	가구주 혼인상태	0.126	0.25	24.14
	부채	0.032	0.07	6.13
	자산	-0.368	0.55	-70.50
	상용근로자 수	-0.187 ***	0.06	-35.82
	임시·일용근로자 수	-0.046	0.06	-8.81
_cons		0.741	0.62	141.95

주: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비중은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전체 차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제 5 장 결론

### 제 1절 요약

본 연구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가계소비지출 차이 분석을 통해 농촌과 도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농촌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농촌과 도시, 소득분위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가구의 소비지출 현황을 살펴보고 소비지출 항목별 결정요인을 추정하며 Oaxaca 요인분해 분석을 활용하여 농촌과 도시 소비차이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표본자료를 통하여 살펴 본 농촌과 도시는 인구사회학적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농촌의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70%가 넘으며 도시의 노인 비중은 45% 정도로 농촌이 도시보다 고령화의 정도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촌의 가구주 교육수준은 중졸이하의 비중이 73%로 나타나고 대졸이상의 비중이 5%인 반면 도시는 중졸이하의 비중이 43%이고 대졸이상의 비중은 18%로 도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농촌 가구주의 교육수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연령대를 나누어 봤을 때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소득 1분위와 2분위에서는 농촌과 도시 모두 7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높았고 소득 4분위와 5분위에서는 4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에 이르는 연령층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낮은 소득분위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촌과 도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농촌이 도시보다 고령화 되어 있어 그 비중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현황분석을 위해 5개의 소득분위와 11개의 연령층으로 표본을 세분화 하였다.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항목별 지출액 및 비중을 살펴 본 결과 농촌과 도시는 총 생활비의 평균지출이 40% 가량

차이가 나 농촌이 도시 총 생활소비의 60%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소비지출 항목에서의 농촌과 도시의 소비차이도 60% 정도에 머무를 것이라는 예상 하에 월평균 지출을 살펴보았을 때 월세와 사교육비 항목에서 농촌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가정식비와 보건의료비는 농촌에서 예상보다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농촌과 도시의 평균 가구원 수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평균 가구원 수가 많은 도시가 평균 가구원 수가 적은 농촌에 비해 소비지출이 많게 된다. 따라서 각 항목별 소비지출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1인당 소비지출을 살펴 본 결과 총 생활비 1인 평균지출은 농촌이 도시 총 생활 소비의 80% 수준으로 나타나며 가정식비와 보건의료비의 1인 평균지출은 농촌이 도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보건의료비의 경우 농촌이 도시보다 24% 정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총 생활비가 도시의 80% 수준인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패널GLS 추정기법을 사용하여 농촌과 도시가계의 소비항목별 소비지출 결정요인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가정식비의 경우 전체 표본에서는 모든 변수가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촌과 도시를 나누어 분석하였을 경우에 농촌에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미하게 작용하며 도시에서는 전체 표본과 마찬가지로 모든 변수가 유의미하게 작용한다. 농촌과 도시 모두 가구 내 상용근로자 수와 임시·일용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가정식비 지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와 달리 외식비 지출은 상용근로자 수와 임시·일용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 내 상용근로자 수와 임시·일용근로자 수 외에도 가구원 수를 비롯하여 가구주의 성별과 교육수준은 농촌과 도시 모두 외식비 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구주의 혼인상태의 경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의 연령과 자산 변수는 농촌에 부(-)의 효과인 반면 도시에는 정(+)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교육비의 경우에는 전체 표본 회귀분석 결과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는 지역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교육비와 같은 경우 농촌과 도시의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비지출에 있어 지역적 변수가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농촌과 도시로 나누어진 표본에서는 농촌과 도시지역 모두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공교육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구주의 성별이 남성일 경우와 가구주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더 적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주 연령, 연령제곱, 교육수준 변수는 도시에만 유의미하게 작용한다.

사교육비는 전체 표본의 경우 가처분소득과 자산을 제외한 변수들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농촌과 도시 모두 가구원 수는 유의미하게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구주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에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농촌과 도시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가구주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상용근로자 수와 임시·일용근로자 수는 모두 유의미하게 보건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구주의 성별이 남성일 경우에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보다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적다. 가구주의 연령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농촌에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보건의료비 지출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시에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보건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표본에서는 가구주 혼인상태 변수가 교양오락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농촌과 도시를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가구주의 배우자 유무가 교양오락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촌에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교양오락비 지출이 감소한다. 또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처분소득이 많을수록, 상용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교양오락비 지출이 증가한다.

소비지출 결정요인 분석과 더불어 소득과 연령을 통제하여 동일 소득 분위 이면서 동일 연령인 집단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을 때,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 차이의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5세 단위, 총 11개의 연령층으로 세분화 하였던 연령을 크게 청장년층과 노년층으로 나누고 소득분위별로 묶어 소비지출 항목별 1인당 월평균 지출액 합을 구하였다. 지출액의 합이 도시 대비 농촌의 비중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집단을 선택하였는데, 그 중 농촌과 도시의 지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집단은 가정식비 항목에서는 소득 4분위 노년층, 외식비 항목에서는 소득 3분위 청장년층, 공교육비 항목에서는 소득 2분위 청장년층, 사교육비 항목에서는 소득 5분위 청장년층, 보건의료비 항목에서는 소득 2분위 노년층, 교양오락비 항목에서는 소득 5분위 노년층이다. 여기에 보건의료비 항목만 소득 2분위 청장년층 집단을 추가 분석하였다. 항목별로 선택된 집단의 Oaxaca-Ransom 요인분해 분석을 시행한 결과 가정식비의 경우 소득 4분위 노년층의 농촌과 도시의 지출 차이는 가구 특성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 보다 지역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이 월등히 많다. 가구 특성 중에서는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가 농촌과 도시 지출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장년층 소득 3분위 외식비의 경우에도 농촌과 도시의 지출차이가 상당 부분 지역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구의 특성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은 약 2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식비 항목보다는 작지만 외식비 역시 농촌과 도시 지역 차이에서 비롯되는 지출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득 2분위 청장년층의 공교육비의 경우 농촌의 예측 소비지출이 0.355, 도시의 예측 소비지출이 0.820으로 농촌과 도시의 차이는 0.456으로 추정된다. 이 중 가구특성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은 약 24%, 지역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은 약 76%로 나타난다. 가구특성 차이를 야기하는 유의미한 변수는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 이다. 소득 5분위 청장년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농촌은 1.526, 도시는 2.314로 농촌과 도시의 차이가 0.788로 추정된다. 도농 간 소득 2분위 청장년층의 공교육비 차이보다 소득 5분위 청장년층 사교육비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사교육비 지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효과 중에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건의료비 항목에서는 소득 2분위 노년층의 지출을 분석하였는데 농촌의 예측 소비지출이 2.348, 도시의 예측 소비지출이 2.222로 농촌이 조금 높게 추정되며 차이는 0.127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약 57%는 특성효과에서 약 43%는 계수효과에서 기인한다. 같은 소득분위 청장년층의 보건의료비 역시 농촌 예측 소비지출이 1.749, 도시 예측 소비지출이 1.516으로 농촌이 높게 추정된다. 차이는 0.233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17%는 가구의 특성 차이에서 기인하는 차이로 약 83%는 지역 차이에서 기인하는 차이로 설명된다. 보건의료비의 경우는 같은 소득분위에서 노년층과 청장년층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는데 청년층의 지출에서 지역 차이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양오락비는 소득 5분위 노년층 집단을 대상으로 소비지출 차이 요인분해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도시 예측 교양오락비 지출이 농촌 예측 교양오락비 지출 보다 크게 추정된다. 전체 차이에서 약 30% 정도를 가구의 특성차이로 설명할 수 있으며 나머지 약 70%는 농촌과 도시의 지역 차이로 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제 2절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의 주요결과로서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복지 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현황분석 결과 농촌은 도시만큼의 소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농촌과 도시의 소득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되며 본 연구의 소비지출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서도 가처분소득은 소비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촌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선 결국 농촌의 소득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 직접지불제와 같은 소득지원 정책을 많이 시행 해왔다. 그러나 농촌과 도시의 소득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소득지원 정책 지원 대상, 방법 등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노년층에서 농촌과 도시의 소비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은 가정식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이며 청장년층에서는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보건의료비이다. 노년층에서는 소득 4분위와 5분위에서 비교적 차이가 많고 청장년층에서는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노년층보다 다양한 소득 분위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노년층의 경우에는 소득분위가 낮으면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결국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과 도시의 항목별 소비지출 차이가 커지는 것인데, 소득 5분위 노년층 교양오락비 항목의 경우 같은 소득을 가지고 같은 연령이지만 약 70% 정도의 차이가 거주지역의 차이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 교양 문화 오락을 즐길 만한 환경이 농촌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 3분위 청년층 외식비 역시 지역차이에서 비롯되는 농촌과 도시의 차이가 약 79%로 농촌은 젊은 세대들도 외식산업, 문화산업 등에서 소외되어 있다. 농촌과 도시는 동일한 소득이어도 소비지출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농촌에 즐길 거리 및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교육비의 경우 소비지출 결정요인 추정결과 도시와 농촌 모두 가처분 소득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교육비 지출결정에 소득은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공교육비보다는 사교육비의 농촌과 도시 지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동일 계층일 때에도 발생하는 농촌과 도시의 교육비 지출 차이에 60% 이상이 지역 차이로 인한 차이로 설명되기 때문에 농촌은 교육환경에서도 도시에 비해 소비할 수 있는 요소, 항목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공교육비에서도 농촌과 도시의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촌의 교육서비스 역시 강화되어 도시와 동일한 질과 양의 교육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노년층의 농촌과 도시의 보건의료비 지출 차이는 지역 차이에서도 기인하지만 가구 특성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의료비는 노년층에서만 지출이 많을 것이라 예상한 바와 달리 청장년층에서도 보건의료비 지출은 적지 않았으며 농촌과 도시의 차이는 청장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가 지역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도

상당 부분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농촌 청장년층에게도 의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반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복지 정책은 대부분 노년층, 특히 농촌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측면이 있다. 보건의료는 건강의 정도,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서비스이므로 농촌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정책 등 정책 적용 대상의 확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제주도를 비롯하여 농어가까지 표본에 포함하고 있어 타 자료보다 대표성이 높으나 복지패널 이기에 표본이 고령층과 빈곤층에 집중되어있다. 때문에 모든 연령층과 소득분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자료적 한계가 있다. 또한 실증분석을 시행함에 있어 직종 또는 업종, 가구형태와 같은 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활용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소비항목별 공통되는 독립변수를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 다양한 변수의 활용이 어려웠고, 동일계층 집단 분석에서는 소득과 연령 변수마저 제거되어 적은 독립변수로 인해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소비지출 항목별로 독립변수들을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보다 정확하고 소비지출 항목에 적합한 결정요인 분석, 농촌과 도시의 동일 소득분위에서 노년층과 청장년층의 소비지출의 차이, 동일 연령층의 소득분위별 소비지출의 차이는 향후 연구과제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대구, 2009, “도시와 농촌 지역 구분 기준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16(3): 557-586.
- 강병구·성효용·윤명수, 2008, “도시와 농촌의 가구빈곤율 차이에 대한 요인분석,” 「사회보장연구」, 24(1): 73-93.
- 강창희·박상곤, 2017, 『STATA를 활용한 미시계량경제학』, 지필미디어.
- 권오상, 2008, “가계별 식료품비 지출행위의 준모수적 분석,” 「농촌경제」, 30(6): 1-18.
- 김미숙, 2010, “도시와 농촌의 빈곤아동 지원정책 탈빈곤 효과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환준, 2016, “사회복지종사자의 성별 임금격차와 그 요인: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7(3): 139-159.
- 민인식·최필선, 2012a,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 \_\_\_\_\_, 2012b, 『STATA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 박문수·홍성욱·최은희, 2016, “가계소득과 서비스 소비지출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 박정수·김준기, 2014, “개인 기부, 소득과 한계 세율에 관한 연구: 패널 데이터 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행정농촌」, 52(3): 1-29.
- 배미경·박광희, 2005, “경제위기에 따른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에 대한 연구 - 주요 지출항목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3): 423-432.
- 배미경, 1998,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비결정 함수 분석,” 「소비자학연구」, 9(4): 83-100.
- 성낙일·홍성우, 2008, “우리나라 사교육비 결정요인 및 경감대책에 대한 실증분석,” 「응용경제」, 10(3): 183-212.
- 성영애·양세정, 1997,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 요인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03-117.

- 성영애, 2013,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본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소비지출패턴,” 「소비자학연구」, 24(3): 157-181.
- 성주인·송미령, 2003, “지역유형 구분과 농촌지역의 유형별 특성,” 「농촌경제」, 26(2): 1-22.
- 손상희·양세정, 1999, “가계식생활비 지출의 결정요인,”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4(5): 497-505.
- 송문갑, 1995, “도·농간의 소비지출 비교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7(2): 31-41.
- 신정우·정형선, 2007, “가계 의료비 지출의 결정 요인 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3(2): 97-117.
- 여윤경·양세정, 2001,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패턴 비교 분석,” 「소비자학연구」, 12(4): 65-81.
- 유병호, 1995, “우리나라 농가의 가계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 연도별 변화를 중심으로,” 「농업경제연구」, 36(1): 63-73.
- 윤정혜, 1984, “도시 및 농촌가계의 소비지출구조의 분석 - 1963년부터 1982년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85-100.
- 은기수, 2012, “한국 농촌 맞벌이부부의 규모 추정 및 사회, 인구학적 특성: 도시 맞벌이부부와 비교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22(2): 83-132.
- 이계임·김성용, 2003, “농가 소비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농업경제연구」, 44(4): 39-58.
- 이상은·최유석, 2010, “서울시 강남과 비강남 지역간 소득 및 재산 격차와 요인분해,” 「한국사회복지학」, 62(3): 31-58.
- 이은우, 1995, “도농간 소득차이의 실태와 원인,” 「경제발전연구」, 1: 249-267.
- 이장영, 2002,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 비교,” 「농촌사회」, 12(1): 89-110.
- 이정원·박현·권오성, 2014, “패널자료를 이용한 소득분위별 소비의 결정 요인 분석,” 「제도와 경제」, 8(3): 137-157.
- 임형백·이성우, 2005, 『농촌사회의 환경과 기능』, 서울대출판부.

- 임채홍·현승현·김수용, 2011, “절대적·상대적 빈곤수준의 결정요인 및 격차 비교분석: 2005-2007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5(4): 77-109.
- 정운영·정세은, 2010, “저소득 노인가계와 고소득 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의 비교,” 「사회보장연구」, 26(4): 21-48.
- 정진화, 2007,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 변화 - 혼인상태 및 직종특성별 비교,” 「노동경제논집」, 30(2): 33-60.
- 최은영, 2016, “가계부채와 가계소비간의 상관관계 분석,” 「인문사회 21」, 7(1): 673-687.
- \_\_\_\_\_, 2017, “고령자 가구소득과 노동 및 가구소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3(1): 117-140.
- 최필선·민인식, 2010,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의 원인분석: Oaxaca 분해를 이용,” 「교육문제연구」, 36: 161-181.
- Bryant, W. K., Zick, Cathleen. D., 2006,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79.
- Cotton, Jeremiah., 1988, “On the Decomposition of Wage Differential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0(2): 236-243.
- González Álvarez, M. L., Barranquero, Antonio. C., 2009, “Inequaliti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in Spain due to double insurance coverage: An Oaxaca-Ransom decomposi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69(5): 793-801.
- Jann, Ben., 2008, “Th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for linear regression models,” *The Stata Journal*, 8(4): 453-479.
- Miles, David., 1997, “A Household Level Study of the Determinants of Incomes and Consumption,” *The Economic Journal*, 197(440): 1-25.
- Neumark, David., 1988, “Employers’ Discriminatory Behavior and the Estimation of Wage Discrimination,”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3(3): 279-295.

- O'Donnell, Owen. and others. 2008, *Analyzing Health Equity Using Household Survey Data*, The World Bank, 147-157.
- Oaxaca, Ronald L., 1973,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3): 693-709.
- Oaxaca, Ronald L., Ransom, Michael R., 1994, "On Discrimination and the Decomposition of Wage Differentials," *Journal of Econometrics*, 61: 5-21.
- \_\_\_\_\_, 1998, "Calculation of approximate variances for wage decomposition differentials,"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24: 55-61.
- Reimers, C., 1983,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Hispanic and Black Me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5: 570-579.

##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0~2016,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 2017.07.24.
- \_\_\_\_\_, 2010~2016, 「농가경제조사」, <http://kosis.kr>, 2017.07.24.
- \_\_\_\_\_, 2010, 「인구총조사」, <http://kosis.kr>, 2017.07.24.
- \_\_\_\_\_, 2015, 「인구총조사」, <http://kosis.kr>, 2017.07.24.
- 한국복지패널, 2008~2016, <https://www.koweps.re.kr:442>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소비, 한국중앙연구원, 2017.07.24.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7677&cid=46630&categoryId=46630#TABLE\\_OF\\_CONTENT1](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7677&cid=46630&categoryId=46630#TABLE_OF_CONTENT1)

## Abstract

# Difference Analysis on Rural and Urban Household Expenditures using Korea Welfare Panel

Hyesun Auh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atterns and structures of consumption shows different features depending on diverse factors such as consumption environment,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sociodemographic conditions. Therefore, differing consumption level and patterns by individuals or social stratum can work as the indicators representing a country's level of economic welfare.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the 1990s, Republic of Korea has faced income polarization, which in turn led to the diversified consumption patterns depending on income levels. Since income is one of the crucial determinants of consumption, it is crucial to examine the consumption patterns in compliance with income levels.



Another notable feature of Korean society is the disparity between rural and urban. Due to the concentrated investments toward urban area since the 1960s, rural area has relatively lagged behind.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for balanced development in the 2000s, the disparity between rural and urban still remains in diverse aspects including living conditions, population structures, and quality of life. Rural area is far more aged with lower income level, which lead to the varying consumption patterns between rural and urban. Scrutinizing the differences in expenditures of rural and urban households can be a cornerstone for establishing policies to reduce the gap.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rural and urban household expenditures using Korea Welfare Panel.

Firstly, the current state of rural and urban household expenditure was investigated. The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regional variable(rural/urban) on households' expenditure by utilizing panel GLS method. In addition, to figure out the factors influencing differences in expenditure by the regional variable within identical income quantile and age group, Oaxaca decomposition method was utilized.

The regression results without separating rural and urban households provide that the regional variable significantly influences all types of the expenditures except for the expenditure on public education. These results prove that the regional difference between rural and urban substantially affects the household expenditures. Rural households have lower level of expenditure on food(at home), dining out, private education, and cultural and recreational service as compared to the urban counterparts. Only the health care expenditure was higher in the rural households.

After separating the rural and urban households, the general orientation of the coefficients was identical throughout the rural and urban households except for the slight changes in significance depending on the estimation methods. In case of the expenditure for dining out, the age of the householder had negative(-) impact in rural households whereas it was positive(+) in the urban households. The number of regular/daily employees revealed negative impact on the expenditure on food(at home), which indicates that the expenditure on food(at home) reduces as the number of regular/daily employees increases. By contrast, the number of regular/daily employees positively impacts the dining-out expenditure.

In case of the expenditure on public education, the results differed between the rural and urban households. For rural households, the age of the householders, the squared term of age of the householders, and education level did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public education expenditures. However, those variable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of urban households. Similarly, i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he education level of the householders does not have significant impact for rural households while it had significant impact in case of urban households. In terms of healthcare expenditure,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shows negative impact in rural households but it had positive impact in urban households. Lastly for cultural and recreational expenditures, gender and age of the householders presents negative influence for both rural and urban households, indicating that the households with male and relatively older householders tend to spend less for cultural and recreational purpose.

The samples were classified into 5 income quantiles and 2 age groups(young-middle aged/elderly) to investigate the expenditure

difference between rural and urban households within identical income and age group. The groups that showed the largest gaps between rural and urban were selected for further analysis: Elderly group in the 4<sup>th</sup> income quantile in food expenditures(at home), young-middle aged group in the 3<sup>rd</sup> income quantile in expenditure for dining out, young-middle aged group in the 2<sup>nd</sup> income quantile in expenditure for public education, young-middle aged group in the 5<sup>th</sup> income quantile in expenditure for private education, and elderly group in the 5<sup>th</sup> income quantile in cultural and recreational expenditures. Health care expenditure was the only cost that rural households consume more than the urban. For health care expenditure, not only elderly group in the 2<sup>nd</sup> income quantile, the largest gap, but also the young-middle aged group in the 2<sup>nd</sup> income quantile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With the Oaxaca-Ransom decomposition method, the factors affecting the different expenditure structure between rural and urban were decomposed into the characteristic effect arisen from the characteristic variables and the coefficient effect arisen from the difference between rural and urban when other aspects being equal. The characteristics effect was most prominent in food expenditures(at home) and the characteristic effect was larger only in the health care expenditures. In other words, the health care expenditures are more influenced by the household characteristics.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suggested above, this study poses the necessity of changing targets and procedures in income support policies for the rural households. Recognizing the shortage of cultural and recreational facilities in the rural area, there is a need to enlarge the chances to enjoy culture, arts, and recreations in the rural area. Moreover, agricultural policy orientations are discussed. Along with

strengthening educational services in the rural area, it is also recommendable to extend the coverage of beneficiaries in health care services which has mainly focused on the older generation. Meanwhile, analysis on every age group and income quantile was restricted since the data is concentrated in elderly group and poor strata. There is also a room for improvements in the sense that more diverse variables could have been applied in the process. Nevertheles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baseline research for rural welfare policies in that it contains the analysis on determinants of expenditures, embraces both rural and urban households, and compares rural and urban households within same age and income group.

Keywords: Rural and Urban, Difference in Expenditures, Determinants of Expenditures, Factor Decomposition

*Student Number:* 2012-21102